

1987학년도 졸업 논문

# 16세기의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의 혁신

기독교 교육학과

안 화 응

16세기의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의 혁신

지도교수 : 오        권        근

이 논문을 졸업논문으로 제출 합니다.

1987년    12월    일

개    록    교    교    육    학    과

안        화        응

안 화 응 의 출 업 년 문 을 인 준 함

인 사 위 원 :

호 택 근

1987년

월

일

목 차

---

I. 서론	1
II. 종교 개혁의 본질	4
一. 개혁의 원인과 배경	4
1. 배경의 부패상	4
2. 종교 개혁의 원인	6
3. 속죄권	6
二. 종교 개혁의 성질	8
1. 종교의 부흥운동	8
2. 순수한 기독교의 재발견	8
3. 신학운동	9
三. 종교 개혁의 공헌	10
1. 성서와 신앙	10
2. 개인의 권리와 의무	11
3. 신앙생활의 혁신	12
III. 종교 개혁자	14
1. Martin Luther	14
1) 95 개조의 항의문과 내용분석	14
2) 사상	15
2. Ulrich Zwingli	17
1) 개혁시기와 생애	17
2) Zwingli의 업적	18
3) Zwingli의 사상과 신학	18
4) Luther 와 Zwingli 의 비교	19

3. John Calvin	20
1) 생애	20
2) 사상과 신학	21
3) 개혁사업과 공헌	28
4) 개혁의 특성	29
4. 기탁 개혁자	30
5. 종교 개혁의 종합적 견해	30
IV. 한국교회의 혁신	32
一. 교회의 특징과 역사적 고찰	32
1. 한국교회 시대 구분	32
2. 한국교회의 특징	34
1) 재태종교의 영향받은 교회(무교, 불교, 유교)	34
2) 특수한 박해를 받은 교회	42
3) 복음적 교회	42
4) 자립적 교회	43
5) 사회적 혁신	44
6) 분열이 있는 교회	45
7) 국토가 양단된 교회	47
二. 한국교회 혁신의 필요성	48
1. 교회와 신학의 연속성	48
2. 교파주의와 교회 생활	48
3. 교역자의 자질	49
4. 교회의 기업화	51
5. 시대의 사조	52

三.교회혁신의 기준	53
四.교회혁신의 새 방향	60
V. 결론	63
VI.참고문헌	66

# I. 序

# 序

1517년 10월 31일 '제 십도제일'① 전일 독일의 한 작은 수도사가 95개의 조항을 Wittenburg 교회 장문에 갖다 붙인 것이 반석이 된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상 큰 사건이 되었다. 이것을 유별한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수도사는 Martin Luther 였던 것이다.

우리는 그의 신앙철학과 신학사상에 비추어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독일 국교의 잘못을 시정하여 보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한 번 신학자들과 토론하여 보기 위한 논제를 제시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아무도 응하지 않아 토론하는 열의가 없었고, 그 대신 95개 조항 문장은 2주간에 못되어 전 독일로 퍼지고 4주간 이내에 독일 구약과 역사가들의 놀라운 소식으로 전달되어졌던 것이다. 병든고 약한 자에게는 의연한 위로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에서는 개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개혁이란 Reformation이다. 이것은 개혁을 의미하고 개혁이나 재편성을 의미한다. 타락한 기존 제도가 새로운 원칙으로 유지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은 존속되도록 불필요하거나 해독을 주는 요소는 제거하고 새로운 요소를 덧붙이고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② 개혁자 Luther 와 Zwingli, Calvin 과 같은 개혁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정신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였다. 그 결과로 구교에서 새로운 항의의 Protestant Church 라고 부른다. 그 뜻은 "대항항의 항의한다. 반항한다"는 뜻이다. 오늘 우리 신도들은 개혁자들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진 교회인 것 만큼 주의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계속 항의하고 대항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신교는 Protestant Church 라고 불러주는 다름없게 여겨지는 바이다.

주) 1. 諸聖徒祭日 (All Saints day)는 모든 성도를 추모함으로 기념하는 제일이며 11월 1일 거행한다. 원교교회에서는 4세기부터, 로마교회는 7세기부터 시작하였다.  
2. 기독교사상 (기독교사상, 1966. 10월호) P.5

18세기 후반에 교회가 성장하여 온갖 권력과 주권은 들어가고 온갖 부속, 불특정 다수에 성장하여 왔고 또한 적게 시달려 많은 신앙한 신도들은 간절 못찾아 방황하였다.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에게 교회는 문제를 바쳐서 승복권을 획득하면 구원은 얻게 된다고 하였으며, 교회와 영리 주의에 눈이 어두워 하나뿐인 교회에 교회가 몰아가 있어서 하나뿐 대항권을 행사 하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안목세계였다. 전통과 전통주의의 혼란으로 교회는 형식적인 이식주의에 빠져 무력하고 혼란하여 갔으며, 신앙은 정오에서 벗어나 어지러진 상황속에 개혁자들이 성서는 근거로한 개혁의 횡횡을 들었던 것이다. 전통적인 신앙이 전통주의로 바뀌고 하나뿐인 은총이 인간의 공로에 바뀌어지는 혼란한 시대였던 것이다. 개혁자들은 「하나뿐인 말씀」을 재발견하여 신앙과 은총 만의 신앙을 역설한 일은 갈려한 일이라고 하였다.<sup>3)</sup> 이와같은 성서는 근거로한 운동이 삽시간에 전 유럽과 동부, 남부 유럽, 세네카, 스코틀랜드, 서구와 대 부분과 영국 등으로 퍼져 나갔으며 개혁의 힘은 그야말로 엄청난 위력이었던 것이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지 백여년이 된다. 그동안 교회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성장하여 왔다. 성장하여 온 모습은 전통으로 정신을 기초로 복음주의에 입각한 교회는 새로 왔기 때문이다. 세계교회에 소개된 한국교회는 Bible-Loving Church, Singing Church, Praying Church, Giving Church, United and Cooperating Church 로 소개되었다.<sup>4)</sup>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순수한 복음적 신앙으로 일관하여 왔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복음주의에 입각한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복음신앙을 온전히 지켰으며,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인도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왔기 때문이다.

선교 100 주년 기념 오늘이 한국교회는 선교에 힘집어 나가야 하고, 교회에

3. 신앙지도, 3부부, 3부부, 3부부 P. 12

4. 도그와서 III 연남신학교 (1972. 5) P. 37



분명히 사회에 교회의 위치를 하강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혹자는  
 말하기를 "현재는 혁명의 시대" "개혁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sup>5)</sup> 이제는 한국의  
 교회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 교회의 혁신이란 과거에 찬양했던 교회의 역사나 전  
 통이나 전통에 대한, 원승에 대한 영구한 회상이 아니라, 앞을 향한 전진이다."  
 그러므로 16 C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에도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성서에 의해  
 서한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계속적인 개혁이 없다면 교회는 교만에  
 빠지고 생명을 잃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본 회칙문을 펴  
 하였고, 개혁자의 정신 Fide Sola (오직 성서로만)에 입각하여 성령의 도  
 우심으로 교회는 바르게 건설하고,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할 것  
 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 문건을 소개하려고 한다.

---

5. 기독교신학 기독교사회, 1966. 10월호, P. 5

## II. 종교개혁의 본질

### 1. 개혁의 원인과 배경

#### 1. 배경과 부패상

16c의 종교개혁은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14~16c 유럽에서 일어났던 문명부흥에서부터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객관적 사건과 관련시켜 볼 때 교황청의 부패, 수도원의 교육생활과 Scola 생활의 쇠퇴, 신비주의의 대두, 새로운 학문의 부흥, 희랍 및 로마고전의 소생, 인쇄술의 발명, 신학의 발전, 희랍어 성서의 출판, 자유사상과 대두 등은 각각의 종교개혁의 개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겠다. 어두움을 쫓고 빛을 비추는 하나의 창조적 현상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이때 이기르 하라.

중세인들은 교황의 신권, 즉제주의의 제도의 희생물이 되어왔다. 개인은 전체에 종속된 단순한 한 측승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中世精神은 설명하는 낱말을 제로 든다면 「복종」 또는 「해방」일 것이다.① 인간의 생활 전반에 걸친 해방운동인 루테살스는 16c 종교개혁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명부흥에 따라온 결과는 개혁에 큰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첫째, 그 결과는 사조로 발명되었다. 둘째로 발전으로 15c 아메리카 대서양을 발견하고, 상업의 발전, 교회의 발전, 천문학의 진보, 항해가 발명, 화약의 발명, 인쇄술과 세기 발전 등등이다. 둘째로 학문의 부흥이다. 루테살스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학문의 부흥은 이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발전되어 나아갔다. 특히 그 바탕에 있어서 이라기의 휴머니즘은

① 지원봉, 루터와 종교개혁 (원문역사사 1975.5), p. 12

② 신암지로, 3방부 근공단장집 p. 12

예로 한다면, 보컬적으로 노력과 윤리는 강조하는 현존적인 것에 치중하였던 것이다. 15C 이후 즉각, 불관사의 사조주의는 교회관계 학자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론에 대한 심서연구가 발전되었던 것이다. 그 사물을 예로 들면 John Agricola (1494-1566), 구약학자 Johannes Reuchlin (1455-1522), Phillip Melancthon (1493-1560), 新의 학자 Desiderius Erasmus (1466-1536) 등이 있다.

첫째는 Henry III 때부터 유럽에서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태의 사조주의는 그 당시 교황수준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종교개혁을 위한 각국적 조치는 되지 못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즉각과 영국의 사조주의는 심서에 대한 지식은 넓히는데 공헌한 바가 크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위한 준비로서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번째는 루네쌍스 운동은 사변적 구체적 사실들을 학설과 연관시켜 연구하는데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 당시 지적, 지적, 사상적인 면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셋째로 과학과 철학의 영향을 끼쳤다. 중세기에는 고원들이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력으로 무리 분열되어 있었으며 사상의 마초와 정신으로 교회가 세정한 교역의 라두의 안색만 화동화으로 강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속에서 중세기 신학의 특성은 과학철학에 대한 지적 불마는 의미하였다.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 Scolar 철학인데 이 Scolar의 목표는 진리발견을 위한 학문의 독자적 탐구라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나 빛의 힘으로 이미 구상된 교역을 광역적으로 대표 현하는 것이었다. 넷째로 루네쌍스는 교역에 영향을 주었다. 다섯째로 예술, 문학, 종교에까지 영향을 주었다.⑧

## 2. 종교개혁의 원인

종교개혁의 원인은 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간접적 원인, 둘째로 직접적 원인을 나눌 수 있다.<sup>9)</sup>

### 1) 간접적 원인

십자군의 실패에 의하여 종교적 위신이 하락되고 교단 부흥의 정황으로 성서주의가 일어나고 양심의 세속화되고 다양한 교회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로마 교회가 그 사상의 반향을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윌켈프, 훔스등의 선구자들이 교회의 부패를 개탄하고 교회의 시정함에 간섭하는 것을 비난하고 이상수배의 배척 등 숭신하여 종교개혁의 필요를 가늠하였다.

### 2) 직접적 원인

Leo X가 매관과 현금을 강요하고 독일의 帝權이 쇠퇴된 틈을 타서 로마의 봉상 팸플 Peter 사원의 개축을 위하여 유명한 면죄부 (Indulgence)를 팔기 시작하였다. 이를 본 삭소니아의 Wittenburg 대학 교수 Martin Luther (1483-1546)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되었던 것이다. 면죄부 판매는 1517년 Peter 사원 건축비로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 3. 속죄권 (Indulgence)

### 1) 속죄권이 나오게 된 배경

속죄권은 11세기부터 있었으며<sup>10)</sup> 첫째로 1-차 십자군 전쟁 당시 (1095. 1차) 교황 우르바 II가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발행하게 되었다. "누구는

9. 간추린 世界史 (학원사 4294. 12) pp. 202-203

10. 간추린 세계사. (학원사 발행 4294) p. 202

지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교회를<sup>①</sup> 개방시키기 위하여 예수  
 살렘으로 가는 사람은 그것으로써 모든 교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  
 였다. 이와 비슷한 속죄권이 후기 십자군 운동을 위해서도 발부되었고... 이  
 러한 습관은 후에 난항하는 폐습이 되었다. 둘째, 속죄권은 교황청의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는 응급수단이 되어서 언제나 재정상 필요할 때는 속죄권을 발부하  
 였다. 셋째, 그후 Luther 당시 교황청은 로마의 St. Peter 대 성당을 수리  
 할 돈을 얻기 위하여 독일 Saxony 주의 세후 George와 결탁하고 삭소니  
 에서 교황이 발부한 속죄권을 팔아 그 수입의 일부는 Saxony 교황 사설비로  
 충당케 하였고 레펠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속죄권을 팔게 하였다. Luther는  
 이것을 반대하여 설교하였다.

2) 로마교회의 유죄 속죄

로마교회에는 죄사함을 유죄케 하는 조건으로 투죄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진심-로 하는 회개, 말로만 하는 죄의 고백, 죄 사벌의 선행이다. 이  
 선행으로서 죄의 댓가는 지불하는 것이다.<sup>②</sup> 이 선행의 기간이 어느가? 1년-4년  
 짜야 문제가 복잡하게 되었는데 성지순례, 빈자구제, 그 밖에 여러가지  
 형식의 생기고 신적인 재산 등으로 죄의 댓가에 따라 교회 기부금을 내는 일  
 까지 있었다.

3) 속죄권의 종류

속죄권에도 80%의 것만 완전한 것이 있었다. 부분적인 것은  
 범죄에 대한 불행의 고통을 감하여 주는 것이고, 완전한 범죄는 1년-2년  
 순적인 완전 속죄이다. 이 완전속죄권(Plenary Indulgence)이 처음으로  
 발행된 것은 제-1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때인 것이다.

11. 바티칸 교회는 바티칸을 의미한다.

12. 기독교 역사권. (대한기독교서회 1951. 9. 1) P. 496

## 二. 종교개혁의 상징

흔히 종교개혁을 말할때 그 운동이 주세에 얽혀 놓은 공권 즉 정치문화, 국가, 교회, 사상적으로 가진 공권을 얘기 하는데, 이것은 개혁의 전제이지 개혁의 본질이나 목적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개혁의 상징은 어떠한 것인가?

### 1. 종교의 부흥 운동이다.

천년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가 권력주의 밑에서 갖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까지도 좌우되어 왔다. 교회의 뿌리에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던 중세 기말에 종교 부흥 운동은 말라갈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종교회가에서 종교 없이 살았다는 사실이 중세 교회가 증명되었다. 외모적으로 웅장하고 거대한 교회당과 어마어마하게 장식한 성당들은 한편 의미에서 종교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야말로 종교의 안락시대였다. 그런데로 종교는 부흥한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다.<sup>13</sup>

### 2. 순수한 기독교의 재반성 운동

종교개혁은 순수한 기독교를 재반성하려는 운동이었다. 교회의 긴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전설과 착설과 교회의 사상은 외형적 광장에 커늘게 되었다.<sup>14</sup> 예컨대 중세기인 교회의 옛에서 이상광은 동한 교회의 시켰고. 그러나 상징이 실체화되면서 마술화, 습관화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십자가와 같은 상징이 너무 흔하게 취급되면서 그 초원적인 뜻이 일상적인 상징물에 이해 감소되었다. 더구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볼 수 있는 상징물 - 시봉 - 세안의 의과 광선, 옷자락, 심지어 방랑한 여인의 가슴속, 심리가 상은 품고 다녔고. 이와 같은 것들은 상징을 초원화해 있는 관계를 그 物體 자체

13. 지원용, 우리와 종교개혁 (천공역사 1975 발행) p. 32

14. 지원용, op. cit., p. 34

의 것인양 생각하게 될 때에 마순화가 시작되었고. 문선주의 전이종은 십자가가 악운을 막아준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일은 생각하기 전에 오른손으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등을 뜯겨라니 거역은커녕 일어날수 밖에 없었다. ⑬

21년 2월 23일 구속의 수감보다 교황의 교서와 명령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성도의 거룩한 사죄보다 교황의 명령만이 조국되기 시작하는 단체만이 있게 되었다. 라스넬의 은총에 의한 수락의 신기는 자취를 감추고, 로마교황청에 바치는 갖가지 세례와 전례증과 훈장등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용서 받을수 없는 과오로 저지르고 있었다. 이와같은 신기의 몰락에 대하여 반기는 듣고 일어난 운동이 곧 종교개혁이다. 이 종교개혁은 사도들에게서 계승한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단순성을 사모하여 「초교회회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은 운동이다. ⑭ 이 운동은 상부에 있는 어떤 종교지도자가 명하여 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전 퍼져나간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 3. 신학운동

종교개혁은 라파의 신학운동에 의한 새가지 원리를 들수 있다

첫째. 종교개혁은 잃었던 성서를 다시 발견하였고, ⑮ 현존하던 성서를 다시 열거하였다. 그 당시 특수계급에만 볼수 있었던 성서가 市民에게까지 개방되었고 인간의 이성과 복잡한 추기방법으로 해석하던 성서가 그 자체의 의하여 해석되게 되었다. 그리고 성서만이 신학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요, 교리의 척도로 삼았다. 그리고 성서만이 유일한 권위이며, 구원의 신기는 그 안에서만 찾

16. 정응섭 논문. 기독교 교학 '75. 10월호 (대한기독교교육회 발행). P. 40

17. 지원용, op. cit., P. 36

18. 지원용. op. cit., P. 35

게 되었다. 교회의 전통, 교황의 교서, 교회의 규칙 등이 성서를 대체하거나 보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종교개혁은 하나님께 은혜에 관하여 다시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은혜는 인류의 구원이요, 완성이 된다. 그러므로 인류의 공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이며, 결국 사탄의 공로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시종일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며 그 분만이 사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주이시다. 이 은혜에 대한 강조와 개인성이야말로 잃었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다시 찾게 한 신학 운동이었다.

셋째, 종교개혁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손이다. 믿음 자체는 선행이나 고행,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라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신앙의 언약 교약에 대한 확신이었다.<sup>19)</sup>

### 三. 종교개혁의 공헌

종교개혁의 공헌은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이 공헌은 그 성격상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것이다.<sup>20)</sup> 그 공헌에 대하여 몇 가지 열거하여 보겠다.

#### 1. 성서와 신앙

첫째로, 현대 유럽이 기독교로 성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 지원훈, 주리와 종교개혁 권공리아사 (1965.) pp. 35-37

20. J. L. Neve,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 p. 34



라틴어의 말쑥한 성서가 거의 손권계에 있는 모든 중요한 문헌과 방언으로 번역되어 천까지 이상의 방언으로 읽혀지게 된 것은 1521년 Luther가 아이젠락에 있는 발트볼그 城에 은둔하면서 번역의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기인된 것이다.<sup>21)</sup> 아름다운 성서가 대중적으로 읽혀지게 된 것이 축복이라 하겠다.

둘째, 중요한 신앙 의인물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주어진 구원을 받기에 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신뢰하고 죄를 참회하는 죄인들이 라틴 말에서 의 선고를 받고, 그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sup>22)</sup> 이것은 오늘날 바울의 신학을 재현시킨 것이다. 우리의 신앙과 유언의 재로와 유언은 성서이다. 우리는 「신도들의 신앙의 유일한 토대가 성서이다」고 강조하였고 교황의 교시나 전통이 신앙의 토대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라틴어 말쑥한 교의를 판정하여, 1546년 6월 28일 교회의 교회 의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자들은 「사도의 교훈이나 계명(말 13:1)에서 교회를 해방시켰다. 「Sola Scriptura」의 주장은 교회를 라틴 말쑥한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종교개혁의 큰 공헌에 속한다.<sup>23)</sup>

## 2. 개인의 권리와 의무

첫째로 개인의 보편적인 시시적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앞에 나아가 그에게서 죄의 용서와 New life와 구원의 모든 열사은사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권리와 의무를 지적하였다.<sup>24)</sup>

둘째로 기독교 교인은 개인적 관행의 권리가 있다는 말은 어떤 사도 이 성서는 자기 주체 불위의 목적과 사상에 맞도록 신실하게 풀라는 것들이

21. 지원동. op. cit., p. 37

22. 엡 2:8-9. 갈 2:16

23. 지원동. op. cit., pp. 37-38

리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판단의 원리는 기독교신자가 명확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떠나야 하고 거짓 목사들의 과오를 떠나서는 안 될라는 것이다. <sup>(24)</sup>

셋째. 음행 예배에서 신자들이 능동적인 면서 변화의 강조하였도. 하나님 앞에서 왕과 세사장으로서의 신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찬양하고 그의 말씀은 듣는 것 등으로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복음주의적인 예배는 개척자들이 기독교 전체를 위하여 회복시킨 복음의 자유의 일부이다. <sup>(25)</sup>

### 3. 신앙생활의 혁신

#### 1) 대중교회의 원기

개척자들은 대중적인 교회를 위해 사셨도. 우리는 가정과 교회 타 국가에서 교회와 훈련의 행할 것을 주장하였도. <sup>(26)</sup> 그는 아이들을 주님의 양육과 교회가운데서 자라나게 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착한 시민으로 양육할 것을 가르쳤도. 이 운동에서 많은 좋은 학교가 세워지고 대중교회가 행해졌다.

2) 결혼과 가정과 신앙생활에 대한 심서적 개념을 불러 일으켰다. 교황권하에서는 결혼이 무가치한 것으로 인정되고, 독신이나 이혼상태는 거룩한 은총을 받은 신성한 소명으로 찬양되었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부인들의 일은 별시를 반겼으며, 한편 수모사와 수녀들의 일은 가치있는 것으로 높이 받들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종교개혁은 순수한 복음의 교리는 회복시켜 모든 면을 개선하였도. 이렇게 하여 결혼과 가정은 일반 기독교인의 생활과 관계된 모든 것을 교리화해 하였도. <sup>(27)</sup>

24. 벨전 2:9 제 1:6

25. 지원용. op. cit., p. 40

26.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절제받고 인명받은 수제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설령의 불사만 구원에게 가납될수있다고 가르쳤도.

3) 한편으로 심판관 예전이 회복 - 로마 교회는 상천에 있어서 불 신도들에게 극복된 것은 죄악의 불응으로 심판관을 불응권하게 하였음. 로마 교회의 의하면 「성도는 주입된 은총으로서 심판관을 반노자에게 구원도 얻을 수 있는 힘을 누려 주기 위하여 판정되었음. 이것은 심판관을 법적인 판정으로 만든 것이다. 종교개혁으로 교회의 신도들은 2가지로 판정하여 심판관을 죽이 라고 로마인의 용서와 불화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써 확증으로서 책과 장 과 더불어 구원의 산과 피를 받았음」

4) 종교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 - 신자는 아담의 자손인 인간으로 복되게 되어 있음. 복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충동이 된다. 종교개혁은 교 회와 국가의 모든 쟁점이 대하여 힘있게 항의하였음. 로마노 안에서 왕과 세사장으로서의 신앙의 가치를 강조하고 책임을 느끼며 복사하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였음. 복음주의 교회는 권위주의 국가의 최 선의 형태는 우리와 종교개혁에서 찾을 수 있음. 로마인의 위대한 자유의 투사 인 종교개혁자들은 통해서 우리에게 죄악화한 종교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는 는 기쁨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

27. 이원용. 교회사 부흥대학 교학과전교제 pp. 108 - 109  
 28. Georgia Harkness; christian ethics,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3. 2. 26 발간. pp. 207 - 208  
 29. 지원용. op. cit., pp. 41 - 42  
 30. Dr. J. L. Neve: op. cit. p. 446  
 31. 지원용. op. cit., p. 42

### III 宗教改革者

- Martin Luther

본 논문에서는 개혁자들의 생애를 생략하여 단지 그들의 업적과 사상을 취급하려고 한다. 우리의 개혁은 독일 전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개혁되었다. 우리가 개혁자로서 반박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를 로마인의 은사와 그의 구원에 대한 확실히 믿음을 얻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사상의 중심문제는 개인 영혼의 구원 문제를 연구 비판하게 되었다.<sup>32)</sup> 우리의 사상은 1517년 Wittenburg 교회의 성문 에 붙인 95개조의 항의문과, 그리고 그의 서서가 되게 Luther의 사상 업적 등을 찾아 보도록 하자.

#### 1. 95개조의 항의문과 비움 분석.

1) 95개조의 반박문은 생략한다.

2) 비움 분석.

비움은 여섯 가지로 나뉘어 첫째로 속죄券은 로마인의 징벌을 제할 수 없고 교회의 징벌만 없게 할 뿐이다. 둘째로 속죄권은 죄를 사할 수 없다. 셋째로, 속죄券은 죄인이 하나님께 반을 청할 수 없게 한다. 넷째로, 영혼에 있는 영혼에게는 속죄券이 무효이다. 다섯째 죄를 참회한 신자가 하나님께 죄사한 반은 고로 속죄券은 무효이다. 여섯째, 봉사, 공로, 보좌의 칭호는 하나님께 은사와 영광을 가르칠 뿐이다. .... 등의 것이 비움이다.<sup>33)</sup>

3) 그의 서서는 속죄券 판매의 95개조와 1520년 6월에 출판한 독일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교회주의, 비권위성 논박)와 1520년 10월에 출판한 교회에 바치는 기도(반인 메사랄)와 1520년 11월에 출판한 기독교의 자유(교회에 연구, 신학의 자유, 교회) 등이 있고 그 밖에 대. 소요리문답과 찬송가

32. E.S. Mayer; 人物中心의 교회사. P. 286

33. 박광선; 요양 기독교교회사 (영문사) P. 124

34. 송남원; 세계 기독교교회사 (기독교문화사) P. 292

들어 왔다. 그의 서서기에게 속죄권 매매의 관제를 가진 전통적인 회개 의 개념을 반대하였다.<sup>36)</sup> 그는 교회의 사죄능력, 死者를 위한 속죄권과 회개, 악마와 성자들의 공적이 그리스도의 공적을 보충한다는 로마 교회의 이론을, 천 군으로 사죄권 근거를 삼는 데서 반대하면서 아담과 같은 선배를 추상하게 되었다.

첫째, 以信得義는 통행이나 산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단지 카톨릭 교회의 교리가 의하면 '의롭게 하였을 믿음과 산행이라는 조건이 구비 되어야 이루어 지는 완전적인 과정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Luther는 의롭게 하였음을 얻는 것은 회개 다음으로 오는 것이고 실제로 앞서는 하나님은 후로 하시는 後者이다.<sup>37)</sup> 여기서 회개란 단순히 Attrition으로서 회개가 아니다. 이러한 회개는 가치가 없다.<sup>38)</sup> 단지 부응적인 참회(Contrition)이어야 하며 거기에는 신앙이 동반하게 된다. 또한 19:12을 인용하면서 "아무도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고래 성사로 불가함을 아울러 지적하고, 오직 자백으로 은밀한 중에 머신 하나님께 대한 Fide Sola만의 의롭게 함을 얻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둘째, 만인제사장의 사상 :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민만이 하나님께 직접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 교통과 그의 은사화심을 받는 것은 神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민만이 이루어진다.<sup>39)</sup>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자서 사랑이다"고 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의 변론 239을 증명시켜 주 12:1을 재해석하였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성도들이 거룩한 관례인 교회는 성도들이 각각 거룩한 영성 재물 수 함으로써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나 예배의 행위가 신부의 일방적인 의식적인 행위와 신자들의 신앙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인이 다같이

36. 김기우, 교회사 vol. III. 영남 성서학원 P. 46  
 37. Luther, Seeberg, History of Doctrine II. pp. 235-242  
 38. E. S. Mayer. op. cit. P. 286  
 39. J. L. Neve. A History of Christian in thought. P. 340

예배에 동참하게 즉 각자가 자기 자신의 대하여 세사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sup>40)</sup>

셋째 성경은 믿음과 생활은 위한 표준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이다. 전성이나 전승을 성경에 기초하는 것만 가치가 있다. 즉 이는 성서에 대하여 변화하는 "성서가운데 한 눈자로 볼 수 없는 법이 없다. 9세기라면 이것은 라나트의 기준이다. 라나트의 말뿐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모든 부분은 9세기 초기에 라나트의 것이며 라나트 자신에게 친화 전달하는 것새끼이다. 그러므로 이 책 가운데서 과목이 있을 수 없다. 성서의 해석에 있어서 처음 Origen의 3중 의미를 따랐다. Thomas Aquinas의 해석법에 근거한 3중 의미를 따랐다. 후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의 취하지 않고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었다. 그 라나는 「만능」 그 자체를 신학적인 사색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권위와 계시의 도구를 받아 끊임없이 따라 묻는 법을 보아서 해석하지 않으려 안 된다.<sup>41)</sup> 다른 라나는 성서의 말씀이 켈트어 각각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것이다. 즉 문법적인 방법의 의한 뜻과 현 문헌에 주어진 것새끼와의 상호관계를 발견하려는 것이 그의 차이점이 있다. 성서의 특이성과 실체성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성서의 중심이시며 그 내용이 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성서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sup>42)</sup>

넷째, 속죄론은 형벌 대수설 (Expiatory Penal theory)이었다. 그리스도가 인하여 받은 죄의 형벌을 대속하게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어 죄생의 죽음을 받으셨다. 라나트는 죄의 종에 생각할 수 없어 그의 지가 영원히, 그리고 변경할 도리 없어 그 죄의에 머물기 때문에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절대 선언이 죄에 대하여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속죄법 (atone) 죄의는 가로 말으며 진노의 액자를 치루는 사탄의 사탄의 요리한 대속물 (ransom)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sup>43)</sup>

40. 이강석, 기독교 사상사 (대한 기독교서회 1966) pp 219-220

41. 지현용, op. cit. p. 172

42. E. S. Mayer, op. cit. p. 286

43. 지현용, op. cit. pp. 173-174

44. 이강석, op. cit. p. 182

이와 같이 루터의 속죄관은 그리스도가 죄의 대상을 벌을 받아 희생이 되셨다는 보상을  
을 말하였다.<sup>45)</sup> 그 밖에 인죄론(人罪論), 神論, 教會觀, 국가觀은 생각하며  
성례典은 루터와 Calvin의 차이점을 論點에 취하여 보았다.

## 二. Ulrich Zwingli (1484 - 1531)

### 1. Zwingli의 생애와 개혁 운동

Zwingli는 1484년 14세 출생하여 15세에 신학자 Wapelin의 문하  
생이 되고 2년후 비엔나에 유학하였으며 1522년 철학을 연구하였다. 1526년 글라  
루스에서 목사가 되고, 외람 연구와 설교에 힘을 썼으며 1528년 Einsiedel에서 민중의  
배신적인 있음을 목격하고 개혁 정신이 격발하게 되었다. 그의 개혁의 무대는 스위스  
중 북부에서 활동하는 지방이었다. 그는 Zurich에서 개혁을 시도하여 성공했으며 동  
생 개혁이 몰두하다가 1531년 신교 싸움에서 1531년 죽었다.

Zurich은 시 12 곳의 소도시였다. Bern과 Basel 등 14개, 남 독일  
까지 다 합쳐서 개혁되었다. 그의 개혁의 시발선은 루터와 같은 죄의 속죄론 면제에  
관한 반감에서였다.<sup>46)</sup> 그가 Einsiedel에서 목회할 때 당시 수도원에 14년 이상 관배자  
가 불만을 품고 성서의 교훈과 거리가 먼 것은 통탄하고 개혁할 것을 다짐했으며, 그  
후 Bernhard Samson이 속죄론을 파는 것과 교직자의 독신, 교회에 양한 대수는 보  
고 개혁할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sup>47)</sup>

---

45. 신학술연구회 3권, 나탈선 성경연구회(교회사), p. 91  
46. Ibid. p. 99  
47. E. S. Mayer. op. cit. p. 293

### 2. Zwingli의 업적

스윙글리는 종교개혁자라면 "정치적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sup>48)</sup> 그래서 그의 목자도 정치적 수완이 많은 개혁자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추위를 많이 받았다. 그의 생각은 「오직 성서만이」 원칙이 되었고 이것은 곧바로 65개조 신조문을 공표했는데, 이것을 공개 토론은 물론 결과 승리로 장식하게 되어 본격적으로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65개조는 제1회의의 명령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교인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삼게 하였다.<sup>49)</sup> 그리고 예배 의식의 근본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예컨대 설교와 124의 노래를 위한 명령은 공표하고 그 지방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제1회의가 인정한 설교자로 파송시키게 하였다. 수종의 재산은 교육사업과 빈민구제에 바치게 되었고, 대성당에서 거둔 돈으로 가난한 학교를 설립하였다. 무사한 5성하는 교육기관을 창설하고 교회의 기강과 경륜사건을 위한 교회재판소도 설립하였다. 1525년 4월 13일 Maundy Thursday<sup>50)</sup> (세례 목요일)에 124 마을에 여한은 바쳤는데 Zwingli의 개혁은 단지 3주 동안 완성 보게 되었다. 교회 정리에 있어서 교회의 주권은 교회에 있다고 하였으며, 교회 제정에도 무사와 각 교회의 대표 = 2, 정부 대표 2명 = 2로 구성 되었다<sup>51)</sup> Bern은 1528. 1. 26에 개혁이 단행하게 되고, 바젤은 John Decolambodrus (1492 - 1571)의 힘으로 개혁이 단행하게 되었다. 스윙글리의 제정 = 2는 성경의 즉언어, 스위스어로 번역<sup>52)</sup> 등이 있었다. Zwingli는 성교회를 폐지하였다.

### 3. Zwingli 사상과 체제

그의 개혁은 Sola Scriptura 사상으로 개혁이 단행하였다. 살아있는 신이 되

48. Ibid. P. 295  
 49. J. W. C 의 近代史 (이장영 번역), P. 42  
 50. E. S. Mayer. op. cit. P. 295  
 51. 박광선, 오랑지국교회사, (영문사, 1963) P. 119  
 52. E. S. Mayer. op. cit. P. 295



는 일어난 개혁의 손길이 반박자 한 곳으로 인정하고 개혁하였으나, 53) 성경은 한 곳뿐이  
는 여자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은 것은 모두 반박하였으나. 54)

그는 Luther 보다 지혜로운,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Luther는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Zwing  
리는 신의 율법이 중심이었었다. 예컨대 "그리스도 이전의 불신도 천국에 간다고  
믿었다(Socrates 같은 사람). 그는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신  
리하는 것 뿐 아니라 신의 진리를 받아들이 모든 사업에 나타나는 섭리와 사랑을 믿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Zwingli의 몇몇은 전차적인데 하지만 Calvin의 사  
상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55)

#### 4. Luther와 Zwingli와의 공동점과 차이점

1) 공동점은 두 사람 모두가 카톨릭 신자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전례제도를 받  
고 마르틴루터가 카톨릭 신부로서 훈련과 안수례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가 신에게 예  
한 깊은 신앙과 충성심. 몇 약산은 다른 로마교회로 부터 갈라져 나왔다. 위대  
한 학자로, 선교사였고 영웅적인 인격자로서 종교개혁에 대한 학문적 의욕을 보여 주  
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또한 두 사람 모두가 개혁이 있자 자라야 할 로마교회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56)

2) 차이점은 Luther는 신비사상을 소홀히 하였으나 Zwingli는 신비주의를 안  
지 싫어하였다. 수리가 받은 두 교회의 정권은 서로 하여는 체계와 종교의 사랑에 의하여  
단결이 강조하게 한 반면에 Zwingli는 성서 인도주의자로서 개혁정신을 갖게 되고  
로한 신에게 대한 의의로운 깊이 인식하게 되자 체계 및 주체는 두지 강조하게  
되었다. 두 사람이 사용된사 Catholic에 대한 태도는 비교하면, 우리는 몇

53. Luther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제시하였으나, Zwingli는 65개조의 신조로 반박함

54. E. S. Mayer; 인문 중심 교회사, P. 294

55. Ibid., p. 296

56. Ibid., pp. 294-295

날부터 전해오는 전통을 중히 여기고 가톨릭교회에 굳이 뿌리박혀 있었다. 16세기에  
 최상. 세간 광성품. 중. 그밖의 것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주장하였다. Zwingle는  
 성경을 하느님 말씀으로 여기는 성경을 분명히 기록되지 않은 것을 반박하였다. 특  
 리 그의 이상적인 성경은 신비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반대  
 하였다. 의식과 예식에 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성경은 신령과 성  
 려전에 의해서만 역사화된다"고 하여 성경의 특별한 가치와 성경의 「성체 공  
 개설을 주장하였는데 Zwingle는 은혜의 방법에 의한 성경의 역사는 반박하고  
 성경은 직접 인간의 신령에 역사화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Zwingle는  
 성경은 단지 기쁜 혹은 상징에 불과하다. 우리는 성경의 요소로서 그리스도께  
 서 읽혀진다고 주장했다.<sup>57)</sup>

### 三. John Calvin (1509-1564)

#### 1. 칼빈의 생애

칼빈은 1509. 7. 10에 프랑스 노른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버지는 법률티가로서  
 Calvin도 법학을 연구하게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를 개혁자로 삼으셨다. 그는  
 법학. 고전어. 신학 등의 교육을 많이 받은 그는 Basel에서 「기독교 개혁」을  
 1535년에 완성하였다. 1540년에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을 때 노른에서 온  
 과부와 결혼했으나 9년 후 상사하였다. 1541년 제네바에 들어가 죽기까지  
 23년간 개혁사업에 분주하다가 과로로 분주하던 과로한 생활로 인하여  
 체력 소모되어 1564년 5월 27일에 별세하였다.<sup>58)</sup>

57. 박광성; 요약 기독교회사 pp. 120-121

58. 신학특신강좌 Ⅲ권. 나탈선 성서연구반(교회수련) pp. 79-80

## 2. John Calvin 의 생각.

칼빈은 구약의 조형론이 구약의 타락한 자들이 지물을 사우는 율법의 율법에 놓여있었다. 칼빈의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중심사상이며. 그의 5대교리에서 그의 사상을 살펴 보려고 한다. (TULIP)

### 1)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첫째로 타락의 기원은 아담의 죄와 범죄의 범죄에서 기인되는데 그것으로 인간 사회는 죄가 지배 되고. 죄의 종이 되었다. 즉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 되었으므로 인간 스스로의 공로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인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행위와 계약과 생명의 계약을 맺으셨다. 그러나 이 계약은 사탄들이 어서서 타락으로 인간을 몰아 버렸다.

타락의 타락은 Calvin의 언약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이란 순전히 부정적인 것, 하나님께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것, 불신앙 불순종에 근거한다. 이 불신앙 불순종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부터의 고령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 형상의 상실이다. 사탄의 원죄 그것이라 하겠다. 즉 창조된 인간은 인격적, 자유, 의, 성결, 진실, 등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아담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되고 그는 하나님이 강하게 준 지혜, 힘, 성결, 진리, 의 등을 잃고 그 대신 무서운 무지, 무력, 불결, 공허, 불의의 질병을 계승 받은 것이다. J. Owen도 '우리의 성품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병든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 원수로 선인성의 상실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을 의미한다'

59. E. S. Mayer. 신학의 기초. P. 297  
60. 로레인 바르너: 칼빈주의의 이해. P. 92  
61. Ibid., P. 126

다'고 했다.<sup>62)</sup> Augustinus의 信心에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분배 가졌던  
 天恩에서 쫓겨나고 받았다. 그 결과 죄악이 커져서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타락해 버리고 받았다.'<sup>63)</sup> 그러나 Calvin은 라틴어권 은총과  
 영적인 은사를 구별하여 라틴어권 은사는 죄로 인하여 부과되었으나 神恩은 그의 창조와  
 함께 전제 버리지 아니하고 - 즉 늘 남겨 놓았는대 그것은 아직도 수행하고 계  
 시다. 그 원으로 우리가 선악을 가려낸다'고 하면서 그 예로 '요한은 이를 죄의  
 은사'인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sup>64)</sup>

타락의 범위와 결과 - 타락의 타락은 인간의 어떤 부분에만 부과된 것이 아니라  
 타락적 의지적으로 타락하여 모든 인간의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민창이 되어 아  
 주 쫓겨나 버렸다. 전 인류의 타락인 타락은 전 인류의 집단적 공적으로 본래의 인  
 류의 공적으로 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죄가 생가됨으로 인간은 총체적 진리의 타락  
 이요, 사탄의 아담 노예가 되었다.<sup>65)</sup> 神恩은 사랑과 기쁨 구원으로 만민을 구원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엡 4:13-18)

## 2) 무조건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첫째로 교의 이해: 선택의 사상은 예로부터 성경 중 전적으로 타락된 사탄  
 을 구원하기는 神恩의 목적과 영혼을 낙담에 빠뜨리는 것이다. 선택은 사탄의 총  
 성적으로 버려진 영생할 자와 멸망할 자를 구별하여 타락한 영혼을 타락이 있  
 으니 구원한다. 인생은 타락된 기쁨으로 윤택하고 부패되었을 때 사탄의 종기는 사탄의  
 의 스스로 구원으로 얻을 수 없다. 그러나 神恩의 타락은 영구한 타락을 면하게 한다.  
 그러나 神恩은 타락한 은사로 타락한 영혼을 구하여 타락한 영혼을 구원한다.  
Westminster 신학에 의하면 모든 타락한 영혼을 구하여 타락한 영혼을 구원한다.

62. Ibid., p. 131

63.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 p. 213

64. 전경면 복자 노준기-집 ; 신원성원,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 p. 180

65. 박성환 칼빈주의의 해설 (영광사 1969). p.

66. 롬 3:1-12, 갈 3:22. 약 2:2

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멸망을 예정하셨습니까'고 했다. 선택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멸망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써 그의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것이고 결코 부당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피력자들은 아담 안에서 죄악되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왜가 이리매 성신의 역사로 그리스도께 믿는 신앙에 구원함으로써 소명을 받아 칭의를 얻고 양자가 되며 또한 그의 능력에 의하여 신앙으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피력 받지 못한 자는 구원과 이음자함을 성화되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67

둘째로. 이 학설의 문제라: '세상은 불공평의 신이신다'로 생각될 수 있다. Arminianism 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은혜로 죄악하셨다'는 학설이 장본보다 더 좋지 않을까? 또한 선택받은 반드시 구원받지 않던 것을 필요 없게 된다. 왜냐하면 누가 선택받았는지 불행자 인지를 알 수 없고, 또 선도를 받아 믿는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니 아예 선도를 필요 없게 않을까? 또한 장본교회는 '도덕적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생기기 또한 현대인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기 Hodge 박사를 적절한 대답을 준다. '장본주의에 의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모든 특권은 선택되지 못한 자에게까지 제공되었다'고 했다. 즉 구원의 은혜는 만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68

여기에 대한 나의 견해: 장본주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보지 않는다.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에 의의나 죄의가 있을 수 없으며 신앙으로 볼 때는 오직 간사가 있을 따름이다. 또한 선도에 대해서도 '누가 선택된 것인지 불행자인지 무리는 도무지 모른다. 그러므로 선도는 해야 하며 '나'는 도덕적 선도를 받을 사람까지 예정, 계획하셨다고 보면 어떤 선도가 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으로 이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확신한다.

68. 트레인 보든; 칼빈주의의 역정을 pp. 104-105

69. 롬 9: 11-13. 갈 1: 4-5. 롬 8: 29-30

70. A.A. Hodge, Pamphlet, Presbyterian Doctrine, p. 23

## 3)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그리스도께서 백자를 위해서만 죽으셨다는 것이다.<sup>71)</sup> 그리스도를 살인죄를 위하여 자비없이 사죄없이 모든 개인은 자비를 자비로 바치었는가? 또는 그의 죽으심이 피력자에게만 특수한 관계를 가지는가? 다시 말하면 그의 피병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가? 아니다. 알미니언은 만인구원을 의미한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죄악으로 인하여 죽임으로써 이도라에서 선택된 자만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백자와 백자만 사면에게 바쳐지는 것은 알미니언은 총체로 만인구원을 자기 백자 안에서 부패한 관계를 가지는데 붙여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부신과 직통에 있는 자만을 받는다. 속죄의 가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백자를 유익으로 구원한다. 속죄는 개관적으로 모든 모든 사람에게 자비없이 자립되어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죄인이 스스로의 무능함에 기인하는 주관의 곤란 때문에 심혈으로 만민만이 출생되고, 목숨이 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sup>72)</sup> 즉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출국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출국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일만 의의는 제한한다. 서서는 여타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특수한 수에 대하여 즉 자기 백자(마 1:21)와 자기 백자(요 10:11, 15)와 교회(행 20:28, 롬 8:24, 25). 또는 선택자(롬 8:32, 35)를 위해 자기 백자만을 바치셨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sup>73)</sup> 칼빈은 그의 사역에서 거스릴 수 없다. Scofield 학파자들의 양상을 따라 말하기를 예수는 출국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나 피력자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했다. 그리므로 "예수의 속죄는 전 인류에게 미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보스를 사신 자들 뿐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사하는 자들에게만 한정된다"고 결론을 내린다.<sup>74)</sup>

71. J. L. Neve: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P. 206

72. 트레인 비트너; 칼빈주의의 역사론, P. 180

73. 전경면 외 5명; 신학철학연구 (기독교서회 1973) P. 203

74. 트레인 비트너; op. cit., P. 184

## 4) 불가항력적 은총 (Irresistible regenerating Grace)

첫째. 교리의 전통: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께 없는 **神의 은총**이요, **광민은** 처음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와 성화 **義聖**과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둘째. 증거: 무엇보다도 불가항력적 은총은 **일인하면** 온전 **복음의 회복**이라고 하겠다. 즉 아담 안에서 변화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본연의 자세를 다시 찾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담의 변화로 이것이 되어서 되고, 사악한 **神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다시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즉 아담 안에서 소멸되었던 **시체, 죄, 성질, 죄의** 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받고, **神을 신기서 神과 교제**하는 것이다. Louis T. Talbot의 말을 빌리면 **일인하면 빛의 은총**을 다시 갖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Naive**는 "우리가 진실로 그의 은총에 동참하므로서 우리의 옛 사상은 그의 능력에 의해 **무효**하게 되고 죄의 문은 **죽어**서 타락된 옛 삶만이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의 부활에 동참하여 **神의 義**에 해당하는 새 생활로 자각하는 것이다"고 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동참하므로 **죄의 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다.

셋째. 거실할 수 없는 은총: 은총의 역사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자들에게 전혀 **神의 은총**으로 내려진다. L. Boettner는 "구생시키는 일은 전혀 구원자 조차권적으로 되는 일이므로 **神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구생시킬 자는 구생시키고, 버릴 자는 그냥 버려두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은 누구에게 내려지든지 전혀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고 했다.<sup>79</sup> 즉 구원의 최초의 행동은 인간에게서 일어난다 수 없고 구생은 **피생된 자들에게** 주시는 **神이 주권적** 역사이다. 이는 재할조의 사업은 **神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sup>80</sup>

79. L. Boettner, **갈보리의 예정** . p. 137

80. **Ibid.** , p. 194

이같이 영혼을 갱생시키며 광성화케 하라야 사람은 하나님의 기계적 역할을 할 뿐이고 내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니 누구나 이 은혜를 받기로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되며 죄짐을 지고 살 수 없다<sup>81)</sup> Calvin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다.

은혜는 불가항력적이고 예정된 것이므로 은혜는 시비를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만일 은혜가 인간에게 임하면 인간은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에 있어서와 똑같이 시비를 막은 속어로 자기의 의지를 수행하시기 때문이다.<sup>82)</sup>

## 5)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첫째: 개요.

성도의 궁극적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병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의 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신 자는 순종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은혜의 상대에서 타락될 수는 없다. 이 자는 죄후까지 확실히 보존되어 영원히 득구하신다"(172) 등. 인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번 다시 타락하여 멸망하는 일이 없다. 비록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 교의는 칼빈주의 신학 체계에서 반드시 없지 못할 부분인 것이었다. 신학과 교의는 은혜의 교의는 이론적으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자의 확실한 구원을 포함한 것이다. 즉 만일 신학의 구속적 은혜를 그들에게 유효하게 내리

81. L. Boettner; op. cit. pp. 182-199

82. L. Berkhof; 기독교사 (은성문화사, 1974) p. 234



그들에게 유희하게 내키시면, 그들은 반드시 구원되리 앞의면 안될까는 것은 분가되한 결과가 된 것이다.

셋째. 성령의 인격은 시(時)와 흥(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총이 있다. Paul은 신자가 흥(興)하게 되기 앞서 은총(恩賜)에 있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은총(恩賜)에 있다고 우리가 흥(興)하게 위하여 처(處)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멸망(滅亡)의 원인이 되리 못하는 것이다. 만일 은총(恩賜)이 된 행(行)으로 불(不)의한지 앞(前)이니 그렇지 앞(前)은 은총(恩賜)이 되리 못하는 법(法)(롬 11:26). 그리고 신자에게 있어서는 흥(興)을 그리스도로 불(不)의한지 (구원(救贖)의 조건) 폐(廢)기된 것이다.(론 7:24). 그러므로 성령의 흥(興)을 구원은 사(事)의 선행(善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恩賜)에 있는 것이다.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보증(保證)을 구(求)하셨는데 그것은 하(下)의 백성(百姓)에 처(處)한 無限 神(神)의 은총(恩賜)으로 구(求)함 여(여) 보증(保證)하는 것이다. 이 보증(保證)은 하(下)의 죄(罪)와 같이 구(求)함의 것이다. 그의 사랑은 아무(何)것도 무(無)조건(條件)의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불(不)는 것이 아(不)고, 그가 우리보다 더욱 더 굳(固)히 확(確)실하게 우리를 불(不)는 것이다.<sup>24</sup>

넷째. 일시적(一時的) 타락(墮落) : 찬(贊)된 신자(新者)라도 일시적(一時的)으로 범죄(犯罪)할 수 있다. 찬(贊)된 백성(百姓)에게서 말하는 흥(興)을 구(求)함은 성경(聖經)만이 신자(新者)에게 일시적(一時的) 타락(墮落)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完全) 타락(墮落)하여 지(地)에 갈(去) 법(法)이 없다는 것이다.<sup>25</sup> 신자(新者)는 죄(罪)를 변화(變化)하거나 잠시 배교(背教)할 수 있다. 그러나 아주 타락(墮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성(聖)령(靈)에서 비(非)로 지(地)에 향(向)한 그리스도(基督)인이거나 그가 진(眞)정(正)한 그리스도(基督)인이거나 그 전(前)의 은총(恩賜)은 그(其)의 마음(心)에 영(永)수(永久)시(時)인(在)다. 그의 흥(興)을 배교(背教)에서 확(確)실(實)히 불(不)로(로)하시(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행(善行)하는 결과(結果) 타락(墮落)의 죄(罪)를 계(戒)한 아래(下)에 처(處)하지 않는다. 「우(我)가 이 보(保)매(每)는 전(全) 그(其)에게 가(加)셨(은)」

24. 로마서 11:29. 8:28. 8:35-39

25. 박성환, 찬(贊)된 백성(百姓)의 해설(解說), (영광사 1969), p. 264

나 이들 능력의 신히 큰 것이 천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sup>86)</sup>

### 3 CALVIN의 개혁사업과 공헌

Calvin의 개혁은 제네바는 중심으로 불어남 사용하는 서서 스코트랜드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개혁을 하였다. 처음에 칼빈은 Farel과 함께 도사로 회교사로 만들려 했으나 - 次的으로 실패했다<sup>87)</sup> 그러나 그곳이 이듬해 제네바는 중심으로 政教-권을 실현시켰다. 그의 개혁의 시작은 1513년 교황 Clement 7세가 제네바에서 숙적포를 팔았다<sup>88)</sup> 그 때 그 일을 목격하여 칼빈의 개혁의 충성을 알게 되었다.

Calvin의 개혁에 힘을 준 사람은 FAREL이며 Bern의 개혁 사업에 크게 성공을 가져 온에서부터이다. 이를 통하여 칼빈은 용기를 얻어 제네바 市의 자유 會衆의 투쟁이 도호에 되었다. 1535년 8월 제네바 개혁에 반을 들며 죽었는데 200인 議會<sup>89)</sup>는 「Mass 행한을 그라함이며 불속 개혁과 규율을 단결의 정강」에 큰 힘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법도 제정시켰다 (Ordonnances Ecclesiastiques 불사 광도의 정본) 는데 이것이 현재 불속 會衆의 기구와 같다. 교회정치는 간혹없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교회법과 판정은 이회로 거쳐야만 했다.

불속과 교회 조직을 위한 議의회법을 조직하였는데 議의회 구성은 목사 5인, 장노 12인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권한은 市의 會衆과 조직을 관할하며

86. 고후4:17

87. J. W. C 판트. 이광성역. 교회사. P. 57

88. 박광성. op. cit., p. 122

89. 제네바 市政은 3종의 의회가 있었는데 ( 議의회 200인, 의회, 시민총회). 드큰 회중의 라나면

주, 수동, 노예, 사치를 면하게 통제하였다. 그리고 그의 사명중의 하나는 산업은 민중  
 의 손에 드도록 하였고 교회에 많은 공을 세운 사상이요, 대각을 선포하고 학장이  
 되었고 많은 교역자를 양성 배출하였으며 특히 자서전 공을 세웠다. Seneca의  
 관용론 (Declamation), 기독교 강요, 십자가해, 문명사, 선교사관<sup>90</sup> 등이 있다.

#### 4. CALVIN의 개혁의 특성

첫째로 그의 신학은 통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의 신학이 발전하게 되  
 었으며 세계 각국에 적용되기 쉬운 체질이 있게 되었다.

둘째 예배개혁이 단순하다.

셋째, 기독교 생활의 훈련이다. 순례를 면하게 훈련시켜 신앙고백을  
 서약하게끔 하였다.<sup>91</sup>

#### 5. CALVIN과 LUTHER와의 차이

칼빈과 루터는 개혁상 거의 같다. 종교개혁을 주장한 것이나 성서의 권  
 위를 인정했거나 모두 같은데 다른점이 있다고 하면 성찬식의 의미에서 찾  
 을 수 있고 또한 루터의 개혁은 자기 자신의 변혁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었  
 다 (자신의 귀담방금). 그래서 그런지 문자로 예배의식 같은 변은 개혁하  
 지 못하였다. 성찬식에 있어서 칼빈은 Zwingli와 같은 견해를 가졌다.  
 즉 기년설을 주장하면서도 영성 은혜에 치중하였으나 루터는 쥘과 모로주  
 가 쓴 예수서 본기도 되라고 주장하는 카도릭 사상의 해두기 안에서 벗  
 어날 수 없었던 것이라. 카도릭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성체 공존설을 주장한 것  
 뿐이다.

90. 김기수, 교회사 3권 (경안신서각원 발행) p. 49

91. 신학통신교과. 4월호 신서연구 (교회사) pp. 80-81

#### 四 그 밖의 종교개혁자

우리 스코틀랜드 왕비의 개혁정신은 전세계에 퍼져나갔으며 종교개혁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사회와 국가에 큰 변화가 가져왔다. 그러나 新.舊敎(新舊敎)의 거리가 멀어졌으며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30년 전쟁) 그러나 개혁의 불길은 계속 일어난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으로 퍼져나갔으며 또한 개혁자들도 많이 일어났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John Knox (1505-1572)는 줄로 리드라였으며, 스코틀랜드 교회의 신앙고백은 훌륭한 것이다.

#### 五 종교개혁의 종합적 견해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부패를 지적하고 성경의 오직 하나님에 신앙의 최고로 규범임을 밝혀 준바 되었으며 중세에 사관들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종교관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그 대부분이 구교의 수호사들이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개혁으로 교회조직, 신학, 예배에 있어서 구교는 별로 변화가 없었지만, 신앙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가져왔고 신교 신자들은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가져왔다. 이러한 개혁의 정신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내려오는 개혁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안 수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protest는 성경의 말씀과 일치된 전신라게 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개혁자들의 생활이었는데 또한 전신라게 느껴지는 바이다.

## 제 2부 한국교회의 혁신

## Ⅳ 한국교회의革新

### — 교회의 성장과 史的 考察

#### 1. 교회사 구분

百年 만에 지금 또한 한국교회는 구분하기란 쉬운 일 같으나 한국교회는 시작부터 성령의 역사로 되었고. 그 가운데 성장하면서 시대 시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인식하여 지금도 그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려고 한다.

#### 제 1 시대 : 기독교의 전래와 교회의 발전 (1884 — 1906)

우선 1884년 이전까지 북은 반개전해였으나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1884년 부터이다. ALLEN이 구정으로서 반개전해서 부터이다. 그러나 정식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입국에서부터 시작된다 (1885년 부활주일 아침) 이때부터 북은 개전해 되고 선교사들은 순회전도 및 선교구역도 조정하고, 의료사업에 힘을 쓰게 되었다. (1897). 1897 ~ 1906년에는 신학교의 시작되었고, 교회는 각종라는 교회로 성장하고, 교육사업과 의료사업도 병행하였으므로 성서의 번역과 보급에 힘을 썼던 시대이다.

#### 제 2 시대 : 교회의 부흥과 신사관배로 인한 박해시대 (1907 ~ 1930)

한국교회사에서 큰 이변이 있었던 때는 1907년 부흥운동이었다. 곳곳에 부흥회는 물론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현재의 부흥회의 성질과 다른 Style이었는데 이것을 기도와 랍새라고. 성서연구와 병행되는 전과는 성경강연라하게 되

었다. 여기에서 린은 근은 교회는 연합운동과 中國에 선교하는 파송하겠다는 의  
다. 이렇게 교회는 일치원장 부흥하였으나 국가는 19이년 한일합방으로 나라는 일  
게 되어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 제 3 시대. 교회의 핍박과 해방의 시대 (1930 - 1945)

일본의 세력이 강화되고 1936년 中日전쟁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핍박이  
오게 되었다. 여기에서 생긴 것이 신사참배 제(制)인데, 이는 반대한 주(主)의 종  
들을 끌어 순교의 피는 흘리셨으며, 더욱 슬픈 사실은 총회가 신사참배로 결성  
으로 인정하게 된 사실은 교회사에 나라는 슬픔이다.

### 제 4 시대. 해방 직후의 교회와 변화기에 대한 교회 (1945 - 현재)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으며,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에 핍박하게 되었다. 6.25 사  
변으로 교회의 수난은 컸고, 사변으로 38선 이북의 성도들이 남쪽으로 피난으로  
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되었다.

W. C. C 의 승인으로, 신사참배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이 더 한층 컸다.  
그 후 6代가 변하게 되니 약간 문젯건이 나오게 되었으나 3세대의 교회는 미  
대한 광하여 성장하고, 전권은 중시하게 되었다. ②

## 2. 한국교회의 특징

1. 한국교회의 신자는 재래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재래 종교란<sup>93)</sup> 무당종교 (Shamanism)와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바랑기에 부응이 부여됐다. 다른 것 무교, 유교, 불교로 살펴보기로 하자.

### A. 무교 (Shamanism)

#### 1) Shamanism의 어원과 교의

어느 민족사도 민족이라고 근처에는 민족의 종교적 성격이 짙은 민족신앙이 오래 전부터 내려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민족종교, 무교, Shamanism이라고 부르는 데 이것은 Tungus족의 무당부인 의사나 呪術師를 Shamanism이라 부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한다. 어찌든 샤머니즘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대개 그 민족의 기질과 관습과 역사에 따라 내용과 형태와 방법이 다소 달리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샤머니즘은 북부지방(아세아 동북)으로부터는 나와서 그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가령 한국의 무당이나 판소리, 주문과 기도의 내용은 한국의 고대 사상의 관습, 사물 그리고 고구려 시대에 의해서 불교적 요소는, 이조시대에 유교적 요소는 한국화하고 있는 Syncretism 的인 Shamanism으로 볼 수 있다.<sup>94)</sup>

한편 한국의 샤머니즘이란 오랜 시간은 이미 오면서 주위의 여러가지 종교적 풍속과 요소는 흡수하여 서로 융통된 테크닉 위에서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93. 이순경 논문; 지식과 사상에 관한 연구 (북원논문 1976. 10월호), p. 37

94. 한국기독교사상감과 Ⅲ권. (기독교사회학) p. 174



## 2) Shamanism의 神觀

天上界와 地上界로 分岐하여 생각하는데 天上界에는 광명과 희락이 충만하고 고통이 없는 곳이다. 천상계에는 天上界들이 존재하는 바 - 음화제 제석전존 보살이 거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神들은 절대적 神으로서 직능과 지배력을 갖는 것이라<sup>95)</sup> 그러나 人間에서는 鬼神으로 통한다. 이러한 神들은 魂形的이며 非人格的이며, 리념과 어둠의 힘을 좋아한다. 그리고 진노와 벌을 내리시는 神으로 알려져 있다.

## 3) Shamanism의 人間의 魂

인간의 구조에서는 靈魂인 것과 肉體인 것이 있다. 靈魂인 것에는 魂과 魄과 魂이 결합하여 생명체로 형성된다고 본다. 그 중 魂은 天上界, 魄은 地上界, 魂은 天上界, 魄은 地上界로 나누어진다. 또한 사소한 병에 걸리면 鬼神의 소행으로 본다. 즉 鬼神이 魂에서 온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병을 앓았다고 하면 이는 鬼神이 들어왔다는 表現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病에 걸리면 무당을 불러 魂을 환다. 샤머니즘은 이 鬼神의 추방을 주요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鬼神추방의 방법으로는 세가지가 있는데 구구법, 경압법, 辟邪과 기도가 있다.

## 4) 샤머니즘의 사회분포도

샤머니즘은 기원전 초기에 소승하여 알은 일반 민중속에 지배력을 가지고 연연히 살아왔다. 예컨대 正初에 토성비전을 보면 농촌에는 서낭당, 어촌에는 무당촌이 있고 곳곳에 솟대 「천하대장군」이 있고 행사가 있는 때에는 지신까지도 책벌레 하고 있는 것이다. 샤머니즘은 知的 정교에 따른 信奉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는 지식층까지 미신적 현상이 있고 무교의 영향력이 쇠퇴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sup>96)</sup> 이것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 따른 수

95. 기독교사상 (기독교사회 1961) 6月号, P. 54

96. 유득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기독교사회 1969) P. 187

의 증강을 생긴다. 예컨대 과거 4년간의 12선업자(무선) 전황이 現相 拜相 拜相. 풍수. 사주.의 분포에 대한 조사부에 통계는 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	21,932원	1961년	19,295원	1962년	18,202원
1963년	21,345원				

여기에서 2, 3천명의 급증차이는 나타난 1960년과 1963년은 다음과 같은 대의원 선거가 있던 해였음. 1960년은 4.19 혁명으로 상황이 불안했고, 1963년은 군정연장 반역 Demol이 있던 해였다는 것을 보아 가히 증명할 수 있음. 그러나 운명을 권치고 除災招福을 일삼는 생생한 스승이 선거와 결부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는 간파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97)</sup>

### 5) 巫敎 現狀

한국 무교에 나타난 성격을 타진해 보면 첫째로 의태성이요. 천사신명이 우리의 생활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으므로 神에게 맡기는 신앙이 있었다. 무당이 자기나 근평과 신앙을 기한 중개자로 여겼다. 둘째로 보수성이요. 전통성 보수성이 주술신앙의 등폐로 나타 의태성이 강했던 한국인에게는 진취성이 없었다. 그래서 문화의 발전에는 눈이 쳐두렸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셋째로 현실주의적 성격이 있다. 현재의 욕구에 집착하다 보니 모든 관심은 현재의 안일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넷째로 현실주의적이다. 운명론에 등을 대고 있는 현실주의가 오락의 날 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sup>98)</sup>

97. 유준식. 한국 종교와 기독교 (기독교 사회 1969) p. 188

98. 함동년간 (함동통신사 발행) 1965

참고: 우리의 고유한 말에는 과거와 現狀은 표시하는 어제'와 '오늘'이라는 말은 있으나 미래는 표시하는 말은 없다. 내일이란 우리의 말은 아니라 관자에서 온 외래어이다

## 6) Shamanism 이 한국교회에 끼친 해독

유교의 형식주의와 은둔사상, 불교의 운둔사상 내지는 내세기주의의 영향도 아울러 고려해야 되겠지만 샤머니즘의 특색은 주로 신앙양상에 있거나 이다. 첫째로 즉흥적인 신앙이다. 계속적인 성화보다 즉각적인 어떤 간증과 반응과 행동을 요구하는 현상이다.<sup>99)</sup> 이것은 변질된 부흥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흥운동은 장려해야겠지만 무당굿과듯 신학적 뒷바침이 없는 부흥사를 불러다가 入社, 拍拜, 무난을 벌이려 하도록 써주어야 은혜는 받은 줄로 안겨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해야 신령한 증으로 인정하고 방언을 못하는 목사는 쫓겨야 하는... 등, 또한 간성적인 사안들은 이러한 목적은 성취하기 위하여 가련도 있어 버린채 그들을 추종하기 위하여 몰두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해석학적 입장에서 도외시될로, 모두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데서 온 것이다. 원래 샤머니즘은 지신을 추앙하고 길흉을 예언하고, 병을 치유하는 일종의 마술적인 것은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민족 음풍이 역사관이든지 생존문제. 그리고 원대한 미래에의 설계가 없는 것이다. 극히 개별적인 기적과 축복만을 문제시 하였다. 교회안에는 이러한 것들도 찾아 보면 너무 많다. 둘째로 신앙의 신비적 요소에 도취하여 윤리적 행위의 책임감을 망각해 버리는 경우이다. 즉 신앙만을 기구하면 윤리적 따가운 것으로서 있을 문제로 보는 생각이다. 한국교회의 사후과 추대와 화벌과 상극이 모두 그러한 이유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역시 샤머니즘의 신비에 기주하고, 개인적, 사회적 윤리문제는 등관외 라는 경향에서 온 듯하다. 무당이나 판수같이 모든 사정 내막을 공개하듯 병의 치유는 위하여 여러가지 추잡하고 누추한 방법의 쓰는 경우는 생각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목적만 기주하고 방법과 과정을 경시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특징이다. 이러한 경향이 한국신앙안에 빈번히 찾아 볼 수 있는 경향이다. 신앙이란 철저한 윤리적 요청임으로 분구하고 샤머니즘적인 기질로 인하여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sup>100)</sup>

99. 기독교 사상강좌 III (기독교서회 발행 1971), p. 178

100. Ibid., p. 179

## B. 불교

불교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유교는 잘 안다. 그러나 불교 본질에서 2 성격만 취급하려고 한다.

## 1) 불교의 성격

첫째로 불교는 제승-승은 참교라 하는 통합적 정신이다. 둘째로 종합 折衷主義이다. 창조적인 한국의 syncretism은 절리신 신과 좌절과 가가 이는 동양사상에서 발취된 바 있거나 종교적으로도 고려와 이교의 불교 수용에 일관하여 흘러들어온 리한관 특성이자. 3道를 1의 은양외의 동주를 은양화하여 왕 건 태조는 사머니즘을 견하여 믿었다. 불교의 소산인 '대왕'은 사머니즘과의 절충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禪. 유. 도의 3를 구를 2의 유분선 3교가 형성상으로는 분기되어 있으나 車 迷 示 賞의 一에 이르러서는 3교가 서로 對하여 가는이 없다고 주장한다. 은 3 교의 종교 종합사상은 이교불교추위의 한 특색을 이루었다. 한편 불교가 타당한 것은 은양외의, 자기 동수설 등의 집 설과 종합화라서 미신기 떨어졌던 것이다. 셋째로 공 3 성 현 실 수 이 라 보 어 사 머니 즘이 형성한 한국인의 신성이었다. 그것은 한국 불교에 있어서도 과 나 의 특 성 을 이 루 어 진 것 이 다. 이것이 한국의 불교는 타당하게 만 든 것 이 다. 그 이유는 유 교 적인 강 박 성 을 갖 지 못 한 수 도 성 인 공 리 주 의 결 단 을 이 유 에 는 참 을 수 있 다. 후 에 는 한 국 불 교 의 특 성 을 요 약 하 면 다 른 과 같 은 추 정 이 가 능 할 것 이 다. 「한국의 불교는 제 승 - 승 은 이 상 으로 라 고 유 리 며 탄 뎀 은 구 원 하 려 고 라 고 다. 그러 나 종합 折 衷 정 신 은 형 성 하 고 공 리 적 현 실 수 의 로 타 당 하 고 만 났 다.<sup>101)</sup>

### C 유교

1) 유교는 이조시대의 종교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조시대의 유교가 한국인의 삶에 어떠한 방향을 주는 긍정적인 것은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할 수 있다.<sup>102)</sup>

한국에 들어온 유교는 6경(시.서.예.악.목.춘.추)을 기점으로 하여 仁義의 도를 가르치는 공자(552-479 BC)의 종교이다. 시.서.서는 6경중 가장 옛 것이며 시는 고대사 문헌의 8은 책이요, 흥은 고대 제도 설명서 춘추는, 그리고 변증서 소의에 의거하여 인간적 도리를 품은 것이다. 공자는 그의 교과적인 논어에서 경전의 근본정신이 仁에 있음을 변화했고, 또한 仁의 근본이 충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계경은 붙였다. 오직 유교의 중심은 2천년에 있다.<sup>103)</sup> 그러므로 춘추는 이 5경의 해석이 있다. 따라서 한.말의 유교는 이 5경의 논자를 해석하는 3세훈포였었다.<sup>104)</sup>

유교가 한국에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불교와 역사는 관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 초기 소수림왕 2년(1122)에는 대략은 세웠고, 명제는 285년 황연은 원본에 보이기 논어와 천자문을 전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교의 목적은 3초책을 잘 알파서 정치나 법률을 운동할 만한 관리가 되는 일과 문장의 기능을 배우는데 지나지 않았다.<sup>105)</sup> 따라서 이것은 황기 배제법에만 국한된 학문이었으며, 결코 일반대중이 종교적 욕구에 응한 것은 아니었다. 엄밀히 말하면 조선시대의 유교는 한문학자도, 문교학자였다. 따라서 불교와의 사이에는 종교로서의 알력은 없었다. 광종 이후 라거제도와 함께 승려가 병행되었지만 어찌 유학자층에도 불교를 믿는 자가 있었으며 또한 불교로 유학은 전하는 자가 적지 아니하였었다.<sup>106)</sup> 그러나 21만년에 이르러 불

102. 유종익, 한국종교와 기독교 (기독교서회) P. 68

103. 유교의 중심은 5경에 있다. 3세대에 따라 6경(시.서.예.악.목.춘.추)중 5경만 보아 춘추. 禮記. 儀禮의 도를 전라했기 그러므로 6경이후 하지 않고 5경으로 한다

104. 유종익, op. cit. pp. 68, 69

105. Ibid. p. 72

교계가 타당함으로서 유자학에 의한 非佛 論들은 과초라졌으며 한편 서로 수업한 주자학은 대부분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주었다.

유교가 부흥하게 된 것은 중원왕(1244-1304) 이후의 일이다.<sup>106)</sup> 126년 宣宗 敎授 都監을 두어 관리들로 하여금 경사로 왕후세자로 국학으로 재건시켰다. 이러한 때에 (1243-1306) 新佛學은 주자학으로 수업하게 되어 慶禪 宗의 유교가 반전화기 시작하는 것이다.

## 2) 한국 유교 한국에 끼친 파급

### ㉠ 파

첫째로 주자학의 권면이다. 유교가 비록 爲人之學이 아니라 爲天之學이기도 하나, 11세의 정제에서 벗어난 주자가 되게 함으로서 한국은 증방예비지국으로 부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로 인륜도덕의 숭상(산강도훈)에 의한 한국 불건사회에 윤리를 확립하게 하였다. 셋째로 청년교육에 중추, 청년과 절의는 중의 여기는 가운데 안빈낙도 관습 있는 인품이 길었다.<sup>107)</sup>

### ㉡ 품

첫째로 蕪華思想이다. 중국은 종주국 대국이라 하고 자유의 정신과 등 김사상을 잃게 하였다. 둘째로 달쟁이다. 국가 소인의 구별 판단은 낮게 쳐놓고 낮을 평가하면서 당쟁이 치는 뿌리였다. 셋째로 가족주의의 폐해이다. 높은 중심한 유교사상으로 만민연애 가족중년이 이기주의는 결실하고 사회와 국가의 공익에 관한 관리는 말살하였다. 넷째, 계급사상이다. 산강도훈의 불건윤리가 결국은 관권백비와 반상적 계급사상을 결성하였다. 다섯째 문(文)은 숭상하고 무(武)는 천시하여 쇠약한 국권을 만들었다. 여섯째, 산업의 기능을 저하시켰다. 상공을 천시

106. Ibid. p. 72

107. Ibid. p. 73

108. 현상훈, 조선유학사 (신원출판 1997), pp. 4-9

하는 유교사상으로 말미암아 양반계급이 산업에 종사하기를 꺼려하였다. 거기서 관공 가족주변에 의한 의외성과 외경의 습성으로 전국 산업계는 쇠퇴하고 말았다. 일용재 하였고, 입신양명으로 부끄럼 드러내는 것이 훈자가 되어 유생들은 관직에 오르기만 바랐으므로 결국에는 세관백성의 타락에까지 갔다. 사회적으로 부교사상이요, 혼순구공과 고예반은 숭상하고 고예반, 개화친위파같은 주역이 되어 좌파주의와 보수주의를 낳았다. 천주교는 반대한 것으로 여기에 큰 원인이 있다. 이상에서 한국의 공권관 것보다 해동은 순정이 더 낫다는 결론이다.<sup>14</sup>

### 3) 유교와 사대주의의 관계

한국인은 신성령성에 대한 절망적인 종교적 요인은 사대주의와 유교이다. 사대주의는 유럽의 역사와 더불어 환경같이 살아온 민족신앙이었으며, 유교는 최근 4-500년 간이나 한국의 사회와 개인의 윤리를 지배함으로써 생화화될 종교적 사상이므로 양자간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두 종교가 기본 성격은 종합적이라고 한다.

첫째, 주체성은 없는 이데올로기. 둘째, 정체성, 보수성. 셋째, 이기적이고 현실성. 넷째로 가족주변적 당파성. 다섯째로 관공민비의 관료성. 여섯째 양악적인 오랑성이다. 이상의 것들이 한국사회의 일반 신성을 형성하고 있는 사대주의, 유교적 성격이라 하겠다.

## 2. 특수한 방패는 바른 교회

한국 교회의 특징은 방패속에서 건립되어 성장하여 왔고 아울러 순교자의 방  
이 바른 교회이다. 한국 교회의 방패는 三種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개척교  
의 방패, 둘째, 日帝의 방패 셋째, 용산속의 방패 등이다. 개척교의 방패는  
1866년 시베리아의 피로 들어왔고, 1898년 신교가 들어온지 10년 만에 구교 4만  
신교 2만 이상이 순교되었다.<sup>15</sup> 1910년 관철방방 이후 뽕밭이 신겼고 1911 ~  
1916년 여간 투옥된 신자의 수는 32,836명 이나 된다.<sup>16</sup> 日帝가 단장으로 신  
사관배는 강요당함으로써 산천천명 이상이 투옥되고 구기천 목사님은 구기사와 50명  
이상의 수가 순교당한 사실이다. 가장 무도한 뽕밭을 만든 일본 용산속의 뽕  
밭이었다. 가슴을 벗기다가 라면 치는 여자들에게 큰 못을 박았으며, 연초  
갈뭇이 천천히 버기르 했다. 나무에 매달고 아래에서 분은신과 채워 버는 등 처  
들이 과행한 야수적 방대로 의하여 피살될 수가 없었다. 신교는 이러한 등  
수한 상황속에서도 교인은 증가했고, 교회는 성장했다.<sup>17</sup> 통계에 의하면 1885  
년 불과 몇 명도 되지 않던 교인이 1905년 5천명, 1909년 20천명, 1935  
년(1919) 67천 4백여 교인이 나왔다.

## 3. 복음적 신앙

한국 교회의 특징은 신앙의 복음적이며 신교의 사상부와 사상의 사변과 연  
결 되었다. 이것은 구교의 신교와 다른 것이다. 신교는 복음을 복음에 보충했  
고, 사상은 관동하고, 반종교로 산여 노략했다. 사경회가 11년은 치었는데 사  
경회에서는 기독교 사상은 위대한 사경회였으므로 많은 전서사는 얻게 된 것은 2  
이유중에 하나라고 하겠다.

105. 유종석, op. cit. 196

106. 김태오 한국과 한국인 (현대인성과 변천) 박영사 1962年版, p. 102

107. 등인왕의 편찬신학교, p. 37



한국에 나온 선교사들은 복음에 입각한 학교도 설립하여 소수만 복음을 전할  
 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복음에 굳게 서게 되게 하였다. 1885년과 1890년 교회는 인도차  
 의를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각 사상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이며, 각  
 사상은 그리스도를 위함 사역자로 일하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애도 자기  
 스스로 단량한가. 이것은 Nevius 원칙<sup>107</sup>」 할년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증거 사명을 고취시키고 있는데, 첫째는 신자가 선도로 나오면 자신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랑과 시기에 능숙이나 드시게 사명회를 개  
 최하고 성경공부에 열중하게 되었다. 셋째는 성경공부, 반에는 부흥전도 강연을  
 하였다. 초대부터 복음적인 다산기에 교회는 세워 나갔으므로 현재도 사도  
 와 선지자들의 타 위에 세운 교회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sup>109</sup>

#### 4. 자립적 선교를 한 한국 교회

한국교회는 자립하는 교회였다. Nevius의 4대 원칙은 자주선교, 자립교  
 회, 자립교회 교회건축의 양적과 질적 등이다.<sup>110</sup> Nevius 선교방침은 다만 자  
 주적으로 장려하고 보조는 자출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중심 교회는 성경공부는 장려하  
 여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공부를 통해 자신 있게 선도로 하게 하는 것이었다.<sup>111</sup>  
 이렇게 하여 한국교회는 성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성서교회가 성립할  
 것에 의한 부흥이 1906년에 일어났던 것이다. 이때 김선주 목사님이 꿈의  
 (Missionary Vision) 소개하면 「우리는 속의 우월한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할 것 같이 우리는, 또한 열린 중국의 수  
 억만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전파하고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  
 이다<sup>112</sup>」 이 성스럽고 장엄한 신약의 꿈은 성취되었다. 1912년 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장로회와 함께 반포도, 사범은 김영훈 세 목사는 우리 산동성 선

107. 장희근. 한국장로교회사 (아성출판사 1970). pp. 76-80  
 108. 1890년 중국 지푸에서 선교하면 Nevius 목사를 초청하여 = 주교 감독하고 한국교회 선교의  
 방침은 세웠는데 이것을 Nevius 원칙이라고 한다  
 109. 신병배 한국기독교교회사 (기독교서회) p. 68  
 110. Ibid. 69

교사로 보낸채 성공하였던 것이다. 극중의 조그만 나뭇가시 이같은 일은 할 수 있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 일이 오랫동안 그리고 확실히 이루어 질수 있었음은 자칫 정신에 임강한 추수간사전 원소에서 볼수가 있다. 「거쳐받았으며 거쳐 주다」고 하신 주님의 교훈은 실행 한 것으로서 지극히대로 「주는교회」의 사명을 다 했다는데 무한한 간사는 느끼게 된다. 이 1912 산동성내 선교사는 2년 大戦 후 중국이 공산화되기 까지 계속해 오다가 급히 천수 시국하게 됨으로 재빨리 태국으로 선교지를 옮기는가 하면 대만, 파키스탄, 사나갈,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오기나와 등지로 계속 현재까지 선교사는 파송하여 북으로 전하는 한국교회도 전폭적 유소없이 발휘하고 있다.

### 5. 사회적 혁신을 일으킨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특징은 사회적 혁신시켜 나갔음이 특징으로 되었다. 한국교회는 결코 윤리적 관점에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일반에 미친 영향 또한 막대하게 있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교향선에 크게 불타 일으켰다.

첫째 정치적으로도 당시 봉건적 잔재가 자식지 않았던 때 1947년 식민지 정국으로 인하여 자주정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정국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민의 자유와 함께 민족적 자주독립에 대한 눈을 뜨게 함으로써 사회적 의식정부와 민세운동의 주동적 인물이 기독교에서 나오게 함으로써<sup>113)</sup> 해방이후에도 저서 많은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둘째, 사회적으로 혁신되었는데 문맹을 퇴치시켰고, 여자의 사상의 고지성을 부르짖은 결과 여성보조운동이 전개되고 청년운동, 사회구제사업, 봉사운동으로 사회를 혁신시켰고 군주, 군면의 전통과 중산층 장로운동(1934년까지)을 한국교회에서 벌였다. 1924년 대항운동 위원회 조직했고, 전제운동으로 1934년에 조선 기독교 전제운동으로 개시할 뿐 아니라 해주와 마산에 결핵환자 요양소를 1924

111. 강리근. 한국장로교회교회사. (아성출판사) P. 89

112. 실로안. III. 영산신학교. P. 39

113. 강리근. op. cit. P. 663

년의 개선, 1925년에 Y.M.C.A.에 등록부근 두고, 1928년 총회에서도 등록  
 층을 두고 등록 운동을 벌였고. 이듬해인 1929년. 양로원을 세워 3  
 가와 사회를 봉사 및 혁신을 일으켰다.

셋째로 교육년이 공권화였다. 배제학교. 이화학교. 숭실전문학교. 연  
 희전문학교. 명아학교 등 각종 학교는 설립하고 민족교육으로 보충하여 사회를 혁신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sup>14)</sup>

### 6. 심각한 분열이 있는 한국교회

교회부 분열은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전이와 타겟. 해방이후 여백까지  
 부흥으로 인하여 교세가 국가의 사회악에 위신이 추락되고, 과거의 역사를 남기  
 게 되었다. 한국교회가 분열된 원인은 어떻게 있는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되나 이를 다시 細分하면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분열의 원인은 지방적인 감정 때문이었다 (간접적 원인). 1930년대  
 교회들은 대체로 북쪽 지방에 편중되어 있었고 따라서 南韓의 교회들은 교회문제  
 에 南韓의 흥망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sup>15)</sup> 그런데 지방적인 차이는  
 문화에도 보수와 진취의 두 파의 차이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평양은 중산으로 한  
 海西 지방의 신학은 천주교 보수주의에 기울어져 있었다. 1911년 서울 연희  
 전문을 세웠으므로 평양에서는 학교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그 계획에 반대하  
 였던 것이다.<sup>16)</sup> 1934년 총회에서 南韓 지방에서 온 목사들은 「근대적기관 등  
 이라고 못을 박았고. 남부 지방에서는 北韓이 천주교였을 총회에서 탈퇴  
 하였다고 위협하였다.

둘째로 분열의 원인은 신학의 대립이었다. 신학자들은 보수신학자들이었

114. 김성현, 간추린 한국교회사 (총회교육부 1962) P. 38

115. S. T. Brown, op. cit. P. 147

116. 김성현, Unity in the Protestant Churches of Korea (Yale Univ.) 박사논문 1955. P. 82

고 복음의 순수성을 한국 사안에게 가르쳤으나 차고의 유혹같은 사안들이  
진취적인 신학기상을 표기시작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돌아온 분들은 평양신  
학에서 신학정치는 감습받은후 목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에서 귀국한 젊은이들은  
장노교를 쫓아 문호를 개방한 간도교회로 옮겨가기 시작했다."<sup>117</sup> 김재준  
목사는 이제까지 성서무오설, 추가영간설만 믿어온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파문의  
말을 던지기 시작했다.

한때로 신사참배로 인하여 분열의 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39년  
1월 의회에서 종교단체법을 일본은 만들고 신자들로 찬배게 했다. 이로 인  
하여 반박과 순응의 양자간서 엇갈린 상태에서 많은 신자와 교회는 고난을  
겪다가 그회 총회에게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에 위반하지 않는 본질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을 자극하며. 또 이에 신사참  
배는 순선 이행하고 국민정신 총동원에 찬가하며 비상사태에서 황국신  
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으로 결의하였다."<sup>118</sup> 총회의 결의로 양파가  
갈기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1945년 해방이 되고 13교회에 다 합쳐졌던  
교회를 재건하게 되었다.

이상에 충분히 많은 교회분열의 간접적 원인이라고 한다면 아예이  
것은 직접적 원인이 된다.

첫째 교단에 가입되지 않은 교파까지도 교회재건운동을 벌였으므로  
교파의 난립이 필가피라게 되었다.

둘째. 공산당의 핍박으로 인하여 북한 신자들이 南韓으로 피난오게 되

117. 조선 예수교 장로회사 총론 P.23

118. 1930. 12. 2 간도회 1회총회 결의안서 문호개방 (신앙자유) 복회관 (기독교연간 1957)

119. 제2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P.9

었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비배하여 지게 되었다.

셋째. 신사참배로 장로교가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처음 W.C.C 문제를 둘러싸고 「홍공단체」란 말을 연립교 총독성도들 申(1903) 「법동노회」를 주장하고 갈라져 나갔다. 1945년 6월에 김재준 목사에 자유교회 신사참배 문제로 분열되었는데 (경건문제가 아니라 신학방법 때문) 다음으로 간디교로 갈라져 갔는데 이것은 경건과 신학보다 교권문제로 분열되었다.<sup>120)</sup> 1915년 교회파가 영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였고, 1953년 한국신학계단에서 분열하여 나갔고, 1957년에 주류적인 소위 통합과 활동의 분열이 있은 후 아직도 연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각 교회의 내외 분열은 신비적인 것과 종말론적인 사상이 집착하여 보나(교회의 신앙양상) 신학적으로 무시하게 되고 소위 선도관과 참례선 지파 같은 이런 사상의 교회가 들어오게 되어 교회내에 계속적인 분열이 오게 되었다.

### 7 국토의 양면된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흥망가오에 타나는 국토가 분단된 상황속에서 있는 교회이다. 1945년 7-8차 내전의 종결로 우리남반은 국토가 양면되게 되었다. 국가적인 운명속에 놓여진 한국교회안은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하며, 이것은 정치사적 차이에 있는 동시에 본 아니나 국가의 상황과 함께 운명은 같은 라면 모든 교회는 공동체성과 사명 의식을 견고하게 된다. 이것을 史的인 견지에서 볼때 한국교회가 양면한 타격을 겪었다고 보아야 한다. 「교회가가 늘 변하는 나라도 같이 간다 (As goes the Church, Goes the Nation)」는 원리에서<sup>121)</sup> 모든 교회가 먼저 타나가 되어 국가적으로 양면한 문제로 교회가 접근하고 나아가 국토의 재 연합을 이루도록 해야 될 것임과도 믿는다.

120. 김성현. op. cit. pp. 158-161  
121. 신병배. 한국의 기독교회사 (기독교서회) pp. 110-112

## 二. 한국교회 혁신의 필요성

### 1. 한국교회는 신학과야 연속성이 없다.

「신교와 교회가 만날 수 있는 접점점(Point of Contact)은 신학 이라고」<sup>123)</sup> 지원용 박사는 지적하고 있다. 현대는 시대의 전환기로 다문화와 현 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듯이 교회로 새로운 신앙의 질서는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신학과 교회가 연결되어야 한다. 신학이 신앙생활에 뒷받침되지 못 할 때 이단 사상이 교회에 혼란하게 되고, Shamanism 과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에게 그것은 신앙을 유희시켜 주게 되는 것이다. 줄래기는 교회나 신학이 접촉 점을 갖지 못하였다는 짧은 우화가 인정하는 바이다.

한국교회는 올바른 신학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수석의 증가, 전도원, 성경학교, 부흥회 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연신을 버는다는 뜻은 어떻게 믿고 행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고루한 전통주의나 현존 도의적의 他 界 관념이나 부성신관 경건역사이나 원시적인 연광주의 경향은 한국교회에 한 부정적인 변인종으로 본다. 즉과는 「한국교회는 신앙은 있으나, 신학은 없다」고 폭 명한다.<sup>124)</sup> 라스너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인간에 관한 이해, 기독교 인의 사명관, 18 교파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주류한 신학의 체계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 한국교회에 분체가 없는 교회가 없다고 한다. 이는 교회와 신학이 연결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 2. 한국교회와 부패상은 교회주의와 교파주의 교회 생활사조에 있다.<sup>125)</sup> 한국교회는 중차당관심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리노회게 이해하는 사형 사물주의

123. 신학사상 강좌 V. 111. (기독교서회, 1971) P. 133

124. 김재준 논문, 선교와 선교정책의 시대적 의미. (새생명 1969. 7월호)

125. 고영근, 한국의 나날들 (25년 2144) P. 16

자들에게 상상도 못할 종교사상은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 할  
 면서라도 라는 부흥이 교회에 생활전에 활기를 나타내는 것이나 지상 생활의 손에 교  
 회의 문제를 단련하여 단하고 밝히는 일은 부흥정신이 아니며 부흥은 무해하는 것보다  
 이같은 것은 종교적사도만이 아니라 철학 관세은 분쟁년것 뿐이다.

이같은 교회부흥에는 지방제과 대사를 같은 것이 한계 여러 부흥적 교회는  
 전신시키고 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도입하여 교회를 꾸며가려고 한다. 인위적인 방  
 법으로 일으키며, 인위적인 방법을 「하느님 뜻」이라고 단련하려고 하는 태도  
 는 부패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30년 전 한국교회에 유별은 있었지만 간 종교  
 장을 두루하는 세상에서 문명에서 사안을 매수한다는 일은 있다. 종교장에 영  
 구보하면 돈을 많이 뿌린 사안이 승낙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교회에 십자  
 가운 되고 간 부흥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종교장에 단련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부  
 흥의 눈이 어두워진 가운이라고 하겠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두루  
 공작을 사적인 하고 그것이 「하느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죄개과 혁신의  
 필요를 구하는 바가 하냐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다 하느님이  
 신성한 교회를 단련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16년 전 회부 단때  
 이 죄과 전대 교회부흥의 죄과 다름바가 있겠는가?

교회는 혁신되어야 한다. 지적인 교파분식과 교회부흥은 교회를 단련시키  
 고 교회의 현실사업을 깨뜨려 버리고 있다. 교회는 혁신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절감하게 된다

3. 교역사의 사권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의 부패된 원인은 90%  
 이상이 한국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126)</sup> 사제가  
 부패되고 양떼들은 갈 길 못찾아 방황하고 있는데 교역자들은 이사회

126. 신학사상연구 3권. (기독교서회, 1971). P. 324

에 대하여 발전하게 하면 Massage는 전단까지 못하리 옳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교역자와 교역자 사이에 불신인 갈등. 중외가 일어나서 신자가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충족하려 하며, 자식과 제자 등에게도 같은 사실은 교역자의 자질문제가 아닐까?

또한 이와는 달리 무지하여 무능하여 교회는 잘 지도하지 못할 때 교회는 세 교역자로 차나게 되어 몇몇대가 되지 말겠는가? 사회적 사명을 임하는 설교자들이 사회 장의 신학에는 충성이 없고 근로인을 자처하여 많은 부정부패 공판이나 반교 종교개혁을 집행하다가 공산당이 무서운 세력권에 면방당과 같은 이합 갈락교회와 다른 바 없는 한국교회이다.<sup>129)</sup>

농촌교회와 도시교회는 비교할 때 농촌교회는 회보도 도시교회는 비싸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교역자들끼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도시교회에 지도자를 두면 안 된다) 농촌교회는 선조비가 많아서 허락하고 있는데 일부 지도자는 자기 재산도 확보하는데만 눈이 번쩍은 지도자가 없지는 않다.

또한 농촌지도자의 신학문제가 있다. 교역강도가 낮은 편이다. 전례식과 교육을 받지 못한 교역자가 수가 많다는 실정이다. 지도자가 잘못 지도할 때 교회가 입은 피해만 또한 큰 것이다. 여가서 기쁨을 받는 사안들 가운데 이런 사안가가 배설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성경 신학은 나갔지만 그것만으로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목회하기엔 힘든 것이다. 다시 개교회를 받아야 된다고 본다. 목회자의 소명은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바 그 은혜가 간절하여 모든 구약에 드러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데 그 이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과 같은 소명 의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 목회자와 신자들 들을 반변하게 된다. 목회는 Job이 되고 말았

129. 김영근.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 (한명문화사 1972) P. 15

128. 원간교회 찬양집 (기독교서회) P. 37 (1976.)



다. <sup>128)</sup> <sup>129)</sup> <sup>130)</sup> <sup>131)</sup> <sup>132)</sup> <sup>133)</sup> <sup>134)</sup> <sup>135)</sup> <sup>136)</sup> <sup>137)</sup> <sup>138)</sup> <sup>139)</sup> <sup>140)</sup> <sup>141)</sup> <sup>142)</sup> <sup>143)</sup> <sup>144)</sup> <sup>145)</sup> <sup>146)</sup> <sup>147)</sup> <sup>148)</sup> <sup>149)</sup> <sup>150)</sup> <sup>151)</sup> <sup>152)</sup> <sup>153)</sup> <sup>154)</sup> <sup>155)</sup> <sup>156)</sup> <sup>157)</sup> <sup>158)</sup> <sup>159)</sup> <sup>160)</sup> <sup>161)</sup> <sup>162)</sup> <sup>163)</sup> <sup>164)</sup> <sup>165)</sup> <sup>166)</sup> <sup>167)</sup> <sup>168)</sup> <sup>169)</sup> <sup>170)</sup> <sup>171)</sup> <sup>172)</sup> <sup>173)</sup> <sup>174)</sup> <sup>175)</sup> <sup>176)</sup> <sup>177)</sup> <sup>178)</sup> <sup>179)</sup> <sup>180)</sup> <sup>181)</sup> <sup>182)</sup> <sup>183)</sup> <sup>184)</sup> <sup>185)</sup> <sup>186)</sup> <sup>187)</sup> <sup>188)</sup> <sup>189)</sup> <sup>190)</sup> <sup>191)</sup> <sup>192)</sup> <sup>193)</sup> <sup>194)</sup> <sup>195)</sup> <sup>196)</sup> <sup>197)</sup> <sup>198)</sup> <sup>199)</sup> <sup>200)</sup> <sup>201)</sup> <sup>202)</sup> <sup>203)</sup> <sup>204)</sup> <sup>205)</sup> <sup>206)</sup> <sup>207)</sup> <sup>208)</sup> <sup>209)</sup> <sup>210)</sup> <sup>211)</sup> <sup>212)</sup> <sup>213)</sup> <sup>214)</sup> <sup>215)</sup> <sup>216)</sup> <sup>217)</sup> <sup>218)</sup> <sup>219)</sup> <sup>220)</sup> <sup>221)</sup> <sup>222)</sup> <sup>223)</sup> <sup>224)</sup> <sup>225)</sup> <sup>226)</sup> <sup>227)</sup> <sup>228)</sup> <sup>229)</sup> <sup>230)</sup> <sup>231)</sup> <sup>232)</sup> <sup>233)</sup> <sup>234)</sup> <sup>235)</sup> <sup>236)</sup> <sup>237)</sup> <sup>238)</sup> <sup>239)</sup> <sup>240)</sup> <sup>241)</sup> <sup>242)</sup> <sup>243)</sup> <sup>244)</sup> <sup>245)</sup> <sup>246)</sup> <sup>247)</sup> <sup>248)</sup> <sup>249)</sup> <sup>250)</sup> <sup>251)</sup> <sup>252)</sup> <sup>253)</sup> <sup>254)</sup> <sup>255)</sup> <sup>256)</sup> <sup>257)</sup> <sup>258)</sup> <sup>259)</sup> <sup>260)</sup> <sup>261)</sup> <sup>262)</sup> <sup>263)</sup> <sup>264)</sup> <sup>265)</sup> <sup>266)</sup> <sup>267)</sup> <sup>268)</sup> <sup>269)</sup> <sup>270)</sup> <sup>271)</sup> <sup>272)</sup> <sup>273)</sup> <sup>274)</sup> <sup>275)</sup> <sup>276)</sup> <sup>277)</sup> <sup>278)</sup> <sup>279)</sup> <sup>280)</sup> <sup>281)</sup> <sup>282)</sup> <sup>283)</sup> <sup>284)</sup> <sup>285)</sup> <sup>286)</sup> <sup>287)</sup> <sup>288)</sup> <sup>289)</sup> <sup>290)</sup> <sup>291)</sup> <sup>292)</sup> <sup>293)</sup> <sup>294)</sup> <sup>295)</sup> <sup>296)</sup> <sup>297)</sup> <sup>298)</sup> <sup>299)</sup> <sup>300)</sup> <sup>301)</sup> <sup>302)</sup> <sup>303)</sup> <sup>304)</sup> <sup>305)</sup> <sup>306)</sup> <sup>307)</sup> <sup>308)</sup> <sup>309)</sup> <sup>310)</sup> <sup>311)</sup> <sup>312)</sup> <sup>313)</sup> <sup>314)</sup> <sup>315)</sup> <sup>316)</sup> <sup>317)</sup> <sup>318)</sup> <sup>319)</sup> <sup>320)</sup> <sup>321)</sup> <sup>322)</sup> <sup>323)</sup> <sup>324)</sup> <sup>325)</sup> <sup>326)</sup> <sup>327)</sup> <sup>328)</sup> <sup>329)</sup> <sup>330)</sup> <sup>331)</sup> <sup>332)</sup> <sup>333)</sup> <sup>334)</sup> <sup>335)</sup> <sup>336)</sup> <sup>337)</sup> <sup>338)</sup> <sup>339)</sup> <sup>340)</sup> <sup>341)</sup> <sup>342)</sup> <sup>343)</sup> <sup>344)</sup> <sup>345)</sup> <sup>346)</sup> <sup>347)</sup> <sup>348)</sup> <sup>349)</sup> <sup>350)</sup> <sup>351)</sup> <sup>352)</sup> <sup>353)</sup> <sup>354)</sup> <sup>355)</sup> <sup>356)</sup> <sup>357)</sup> <sup>358)</sup> <sup>359)</sup> <sup>360)</sup> <sup>361)</sup> <sup>362)</sup> <sup>363)</sup> <sup>364)</sup> <sup>365)</sup> <sup>366)</sup> <sup>367)</sup> <sup>368)</sup> <sup>369)</sup> <sup>370)</sup> <sup>371)</sup> <sup>372)</sup> <sup>373)</sup> <sup>374)</sup> <sup>375)</sup> <sup>376)</sup> <sup>377)</sup> <sup>378)</sup> <sup>379)</sup> <sup>380)</sup> <sup>381)</sup> <sup>382)</sup> <sup>383)</sup> <sup>384)</sup> <sup>385)</sup> <sup>386)</sup> <sup>387)</sup> <sup>388)</sup> <sup>389)</sup> <sup>390)</sup> <sup>391)</sup> <sup>392)</sup> <sup>393)</sup> <sup>394)</sup> <sup>395)</sup> <sup>396)</sup> <sup>397)</sup> <sup>398)</sup> <sup>399)</sup> <sup>400)</sup> <sup>401)</sup> <sup>402)</sup> <sup>403)</sup> <sup>404)</sup> <sup>405)</sup> <sup>406)</sup> <sup>407)</sup> <sup>408)</sup> <sup>409)</sup> <sup>410)</sup> <sup>411)</sup> <sup>412)</sup> <sup>413)</sup> <sup>414)</sup> <sup>415)</sup> <sup>416)</sup> <sup>417)</sup> <sup>418)</sup> <sup>419)</sup> <sup>420)</sup> <sup>421)</sup> <sup>422)</sup> <sup>423)</sup> <sup>424)</sup> <sup>425)</sup> <sup>426)</sup> <sup>427)</sup> <sup>428)</sup> <sup>429)</sup> <sup>430)</sup> <sup>431)</sup> <sup>432)</sup> <sup>433)</sup> <sup>434)</sup> <sup>435)</sup> <sup>436)</sup> <sup>437)</sup> <sup>438)</sup> <sup>439)</sup> <sup>440)</sup> <sup>441)</sup> <sup>442)</sup> <sup>443)</sup> <sup>444)</sup> <sup>445)</sup> <sup>446)</sup> <sup>447)</sup> <sup>448)</sup> <sup>449)</sup> <sup>450)</sup> <sup>451)</sup> <sup>452)</sup> <sup>453)</sup> <sup>454)</sup> <sup>455)</sup> <sup>456)</sup> <sup>457)</sup> <sup>458)</sup> <sup>459)</sup> <sup>460)</sup> <sup>461)</sup> <sup>462)</sup> <sup>463)</sup> <sup>464)</sup> <sup>465)</sup> <sup>466)</sup> <sup>467)</sup> <sup>468)</sup> <sup>469)</sup> <sup>470)</sup> <sup>471)</sup> <sup>472)</sup> <sup>473)</sup> <sup>474)</sup> <sup>475)</sup> <sup>476)</sup> <sup>477)</sup> <sup>478)</sup> <sup>479)</sup> <sup>480)</sup> <sup>481)</sup> <sup>482)</sup> <sup>483)</sup> <sup>484)</sup> <sup>485)</sup> <sup>486)</sup> <sup>487)</sup> <sup>488)</sup> <sup>489)</sup> <sup>490)</sup> <sup>491)</sup> <sup>492)</sup> <sup>493)</sup> <sup>494)</sup> <sup>495)</sup> <sup>496)</sup> <sup>497)</sup> <sup>498)</sup> <sup>499)</sup> <sup>500)</sup> <sup>501)</sup> <sup>502)</sup> <sup>503)</sup> <sup>504)</sup> <sup>505)</sup> <sup>506)</sup> <sup>507)</sup> <sup>508)</sup> <sup>509)</sup> <sup>510)</sup> <sup>511)</sup> <sup>512)</sup> <sup>513)</sup> <sup>514)</sup> <sup>515)</sup> <sup>516)</sup> <sup>517)</sup> <sup>518)</sup> <sup>519)</sup> <sup>520)</sup> <sup>521)</sup> <sup>522)</sup> <sup>523)</sup> <sup>524)</sup> <sup>525)</sup> <sup>526)</sup> <sup>527)</sup> <sup>528)</sup> <sup>529)</sup> <sup>530)</sup> <sup>531)</sup> <sup>532)</sup> <sup>533)</sup> <sup>534)</sup> <sup>535)</sup> <sup>536)</sup> <sup>537)</sup> <sup>538)</sup> <sup>539)</sup> <sup>540)</sup> <sup>541)</sup> <sup>542)</sup> <sup>543)</sup> <sup>544)</sup> <sup>545)</sup> <sup>546)</sup> <sup>547)</sup> <sup>548)</sup> <sup>549)</sup> <sup>550)</sup> <sup>551)</sup> <sup>552)</sup> <sup>553)</sup> <sup>554)</sup> <sup>555)</sup> <sup>556)</sup> <sup>557)</sup> <sup>558)</sup> <sup>559)</sup> <sup>560)</sup> <sup>561)</sup> <sup>562)</sup> <sup>563)</sup> <sup>564)</sup> <sup>565)</sup> <sup>566)</sup> <sup>567)</sup> <sup>568)</sup> <sup>569)</sup> <sup>570)</sup> <sup>571)</sup> <sup>572)</sup> <sup>573)</sup> <sup>574)</sup> <sup>575)</sup> <sup>576)</sup> <sup>577)</sup> <sup>578)</sup> <sup>579)</sup> <sup>580)</sup> <sup>581)</sup> <sup>582)</sup> <sup>583)</sup> <sup>584)</sup> <sup>585)</sup> <sup>586)</sup> <sup>587)</sup> <sup>588)</sup> <sup>589)</sup> <sup>590)</sup> <sup>591)</sup> <sup>592)</sup> <sup>593)</sup> <sup>594)</sup> <sup>595)</sup> <sup>596)</sup> <sup>597)</sup> <sup>598)</sup> <sup>599)</sup> <sup>600)</sup> <sup>601)</sup> <sup>602)</sup> <sup>603)</sup> <sup>604)</sup> <sup>605)</sup> <sup>606)</sup> <sup>607)</sup> <sup>608)</sup> <sup>609)</sup> <sup>610)</sup> <sup>611)</sup> <sup>612)</sup> <sup>613)</sup> <sup>614)</sup> <sup>615)</sup> <sup>616)</sup> <sup>617)</sup> <sup>618)</sup> <sup>619)</sup> <sup>620)</sup> <sup>621)</sup> <sup>622)</sup> <sup>623)</sup> <sup>624)</sup> <sup>625)</sup> <sup>626)</sup> <sup>627)</sup> <sup>628)</sup> <sup>629)</sup> <sup>630)</sup> <sup>631)</sup> <sup>632)</sup> <sup>633)</sup> <sup>634)</sup> <sup>635)</sup> <sup>636)</sup> <sup>637)</sup> <sup>638)</sup> <sup>639)</sup> <sup>640)</sup> <sup>641)</sup> <sup>642)</sup> <sup>643)</sup> <sup>644)</sup> <sup>645)</sup> <sup>646)</sup> <sup>647)</sup> <sup>648)</sup> <sup>649)</sup> <sup>650)</sup> <sup>651)</sup> <sup>652)</sup> <sup>653)</sup> <sup>654)</sup> <sup>655)</sup> <sup>656)</sup> <sup>657)</sup> <sup>658)</sup> <sup>659)</sup> <sup>660)</sup> <sup>661)</sup> <sup>662)</sup> <sup>663)</sup> <sup>664)</sup> <sup>665)</sup> <sup>666)</sup> <sup>667)</sup> <sup>668)</sup> <sup>669)</sup> <sup>670)</sup> <sup>671)</sup> <sup>672)</sup> <sup>673)</sup> <sup>674)</sup> <sup>675)</sup> <sup>676)</sup> <sup>677)</sup> <sup>678)</sup> <sup>679)</sup> <sup>680)</sup> <sup>681)</sup> <sup>682)</sup> <sup>683)</sup> <sup>684)</sup> <sup>685)</sup> <sup>686)</sup> <sup>687)</sup> <sup>688)</sup> <sup>689)</sup> <sup>690)</sup> <sup>691)</sup> <sup>692)</sup> <sup>693)</sup> <sup>694)</sup> <sup>695)</sup> <sup>696)</sup> <sup>697)</sup> <sup>698)</sup> <sup>699)</sup> <sup>700)</sup> <sup>701)</sup> <sup>702)</sup> <sup>703)</sup> <sup>704)</sup> <sup>705)</sup> <sup>706)</sup> <sup>707)</sup> <sup>708)</sup> <sup>709)</sup> <sup>710)</sup> <sup>711)</sup> <sup>712)</sup> <sup>713)</sup> <sup>714)</sup> <sup>715)</sup> <sup>716)</sup> <sup>717)</sup> <sup>718)</sup> <sup>719)</sup> <sup>720)</sup> <sup>721)</sup> <sup>722)</sup> <sup>723)</sup> <sup>724)</sup> <sup>725)</sup> <sup>726)</sup> <sup>727)</sup> <sup>728)</sup> <sup>729)</sup> <sup>730)</sup> <sup>731)</sup> <sup>732)</sup> <sup>733)</sup> <sup>734)</sup> <sup>735)</sup> <sup>736)</sup> <sup>737)</sup> <sup>738)</sup> <sup>739)</sup> <sup>740)</sup> <sup>741)</sup> <sup>742)</sup> <sup>743)</sup> <sup>744)</sup> <sup>745)</sup> <sup>746)</sup> <sup>747)</sup> <sup>748)</sup> <sup>749)</sup> <sup>750)</sup> <sup>751)</sup> <sup>752)</sup> <sup>753)</sup> <sup>754)</sup> <sup>755)</sup> <sup>756)</sup> <sup>757)</sup> <sup>758)</sup> <sup>759)</sup> <sup>760)</sup> <sup>761)</sup> <sup>762)</sup> <sup>763)</sup> <sup>764)</sup> <sup>765)</sup> <sup>766)</sup> <sup>767)</sup> <sup>768)</sup> <sup>769)</sup> <sup>770)</sup> <sup>771)</sup> <sup>772)</sup> <sup>773)</sup> <sup>774)</sup> <sup>775)</sup> <sup>776)</sup> <sup>777)</sup> <sup>778)</sup> <sup>779)</sup> <sup>780)</sup> <sup>781)</sup> <sup>782)</sup> <sup>783)</sup> <sup>784)</sup> <sup>785)</sup> <sup>786)</sup> <sup>787)</sup> <sup>788)</sup> <sup>789)</sup> <sup>790)</sup> <sup>791)</sup> <sup>792)</sup> <sup>793)</sup> <sup>794)</sup> <sup>795)</sup> <sup>796)</sup> <sup>797)</sup> <sup>798)</sup> <sup>799)</sup> <sup>800)</sup> <sup>801)</sup> <sup>802)</sup> <sup>803)</sup> <sup>804)</sup> <sup>805)</sup> <sup>806)</sup> <sup>807)</sup> <sup>808)</sup> <sup>809)</sup> <sup>810)</sup> <sup>811)</sup> <sup>812)</sup> <sup>813)</sup> <sup>814)</sup> <sup>815)</sup> <sup>816)</sup> <sup>817)</sup> <sup>818)</sup> <sup>819)</sup> <sup>820)</sup> <sup>821)</sup> <sup>822)</sup> <sup>823)</sup> <sup>824)</sup> <sup>825)</sup> <sup>826)</sup> <sup>827)</sup> <sup>828)</sup> <sup>829)</sup> <sup>830)</sup> <sup>831)</sup> <sup>832)</sup> <sup>833)</sup> <sup>834)</sup> <sup>835)</sup> <sup>836)</sup> <sup>837)</sup> <sup>838)</sup> <sup>839)</sup> <sup>840)</sup> <sup>841)</sup> <sup>842)</sup> <sup>843)</sup> <sup>844)</sup> <sup>845)</sup> <sup>846)</sup> <sup>847)</sup> <sup>848)</sup> <sup>849)</sup> <sup>850)</sup> <sup>851)</sup> <sup>852)</sup> <sup>853)</sup> <sup>854)</sup> <sup>855)</sup> <sup>856)</sup> <sup>857)</sup> <sup>858)</sup> <sup>859)</sup> <sup>860)</sup> <sup>861)</sup> <sup>862)</sup> <sup>863)</sup> <sup>864)</sup> <sup>865)</sup> <sup>866)</sup> <sup>867)</sup> <sup>868)</sup> <sup>869)</sup> <sup>870)</sup> <sup>871)</sup> <sup>872)</sup> <sup>873)</sup> <sup>874)</sup> <sup>875)</sup> <sup>876)</sup> <sup>877)</sup> <sup>878)</sup> <sup>879)</sup> <sup>880)</sup> <sup>881)</sup> <sup>882)</sup> <sup>883)</sup> <sup>884)</sup> <sup>885)</sup> <sup>886)</sup> <sup>887)</sup> <sup>888)</sup> <sup>889)</sup> <sup>890)</sup> <sup>891)</sup> <sup>892)</sup> <sup>893)</sup> <sup>894)</sup> <sup>895)</sup> <sup>896)</sup> <sup>897)</sup> <sup>898)</sup> <sup>899)</sup> <sup>900)</sup> <sup>901)</sup> <sup>902)</sup> <sup>903)</sup> <sup>904)</sup> <sup>905)</sup> <sup>906)</sup> <sup>907)</sup> <sup>908)</sup> <sup>909)</sup> <sup>910)</sup> <sup>911)</sup> <sup>912)</sup> <sup>913)</sup> <sup>914)</sup> <sup>915)</sup> <sup>916)</sup> <sup>917)</sup> <sup>918)</sup> <sup>919)</sup> <sup>920)</sup> <sup>921)</sup> <sup>922)</sup> <sup>923)</sup> <sup>924)</sup> <sup>925)</sup> <sup>926)</sup> <sup>927)</sup> <sup>928)</sup> <sup>929)</sup> <sup>930)</sup> <sup>931)</sup> <sup>932)</sup> <sup>933)</sup> <sup>934)</sup> <sup>935)</sup> <sup>936)</sup> <sup>937)</sup> <sup>938)</sup> <sup>939)</sup> <sup>940)</sup> <sup>941)</sup> <sup>942)</sup> <sup>943)</sup> <sup>944)</sup> <sup>945)</sup> <sup>946)</sup> <sup>947)</sup> <sup>948)</sup> <sup>949)</sup> <sup>950)</sup> <sup>951)</sup> <sup>952)</sup> <sup>953)</sup> <sup>954)</sup> <sup>955)</sup> <sup>956)</sup> <sup>957)</sup> <sup>958)</sup> <sup>959)</sup> <sup>960)</sup> <sup>961)</sup> <sup>962)</sup> <sup>963)</sup> <sup>964)</sup> <sup>965)</sup> <sup>966)</sup> <sup>967)</sup> <sup>968)</sup> <sup>969)</sup> <sup>970)</sup> <sup>971)</sup> <sup>972)</sup> <sup>973)</sup> <sup>974)</sup> <sup>975)</sup> <sup>976)</sup> <sup>977)</sup> <sup>978)</sup> <sup>979)</sup> <sup>980)</sup> <sup>981)</sup> <sup>982)</sup> <sup>983)</sup> <sup>984)</sup> <sup>985)</sup> <sup>986)</sup> <sup>987)</sup> <sup>988)</sup> <sup>989)</sup> <sup>990)</sup> <sup>991)</sup> <sup>992)</sup> <sup>993)</sup> <sup>994)</sup> <sup>995)</sup> <sup>996)</sup> <sup>997)</sup> <sup>998)</sup> <sup>999)</sup> <sup>1000)</sup>

1. 교회의 기업화의 문제가 있다. 교회는 만능의 천국으로 성체가 임행되는 곳이 되어야 하겠지만 최근의 변질된 교회로 등장하고 있다. 1970년대 교회가 처한 것 같은 교회행정이 커지게 된다. 교회행정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업화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 같은 부분이 아니라 영과를 위한 사명이 있다고 인간중심적이다. 시대의 어떤 사명이나 그 속에서 임하고 있는 비성서적인 사명이 얼마나 임하고 있는가? 주일학교 교회가 처한 것 같은 교회와 교회는 경쟁속에서 교회의 층이 높아지고 있다. 1등 목사, 2등 목사의 등극이 1인인 업체 오히려 오빠가 되었다. 교인들은 큰 인식이 아니라 천국은 「복사와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있게 되었다. 교회의 선교회 방침은 하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있어 야 하겠지만 교회 안에 복사와 같은 하늘의 나라가 있는 몇몇 돈 많은 분의 발언권이 교회의 운영을 좌우하며 "반쯤 천국이 아니고 사탄의 사업가들이 쉴 쉼처는 영생하는 방법이다, 세속적인 수단으로 교회를 확장하는 것은 혁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하여 주고 있다. 과거 수십년 동안 교회에 새겨진 인본주의에 의해서 교회는 그 수직적인 차이를 상실해 버렸다." <sup>129)</sup> 교회는 그 성서상으로 보아 단순한 인본주의의 세속화가 될 수 없는 초월적인 차이를 갖는 바른 기업이어야 될 것이다.

128. 김현실 논술, 『기독교 교회의 미래』 (복원판은 1976. 10월호), p. 9

129. Ibid., p. 10

## 5. 시대의 사조

시대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교회는 본래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헤르만 카인」과 「안톤 비버」의 공저인 「가원 2천년」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반년 반년된 약 100개의 새로운 기술적인 발명품들이 있다. 물론 거기에는 원자과학은 역시해서 새로운 동력원 새로운 의사, 새로운 영화, 새로운 의약품 그리고 교통, 통신, 기타 모든 분야에서 시야를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발명품들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극에 달하였다. 극도로 발달한 사회(산업주의와 기술적인 진보는 근대에 다시 파멸의 직전에 놓여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소위 反文化, 反體制라는 것은 이러한 기술단어의 非社會化된 사회적 배경과, 인간이 보다 아슬하게 自然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생활을 계산하며 과학과 기술세계에 대하여 반감을 느끼 시작하였다는 증거이다.<sup>130)</sup> 이러한 사회의 시대적 사조가 현재의 기술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에서부터 社會 산업주의와 文化에 대한 반감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로 內的 갈등이나 교회주의, 교파주의의 잔에서 깨어나 혁신을 해야 할 시대가 온 줄로 생각된다. 교회의 선교 계획을 눈앞의 대상으로 세우는 것보다 시야를 넓혀 인간의 복음이 담겨진 교회의 사회적 광배 밑에 혁신의 출발이 있어야 하겠다.

130. 김원일 박사논문, 「개교회와 개교회사」 (복원논총 1976. 10월호) pp. 7-9

교회 혁신이란 「교회로 교회가 되게」 하는 운동이다.<sup>131)</sup> 교회로 교회로  
 게 하는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어떻게 혁신 할수 있는가? 그  
 것은 성서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 볼수 있다. 성령강림으로 탄생한 아  
 어난 놀라운 변화로 탄생한 아 오는 우리 교회도 혁신되어야 하고는 혁신한다.  
 이 혁신은 「교회로 무엇이? 교회의 의미와 본질을 알아야 하며, 그 다음  
 교회는 어떤 기능을 띠고로 하는가?」로 분명히 알면 혁신 교회의 혁신은 교  
 회의 한 모습으로 재현되며 혁신될수 있는 것이다.

1. 교회적 본질

교회란 그 이름의 출발은 구약성서부터 시작되었는데 5000 (출 31:4)  
 에서 부터이다.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것을 신약에서 Kupiakov 이란 단어로 바쳤는데 "주의 것 즉 주님께  
 속한 것. 그에게 속한 모, 이라고 할수 있다. 즉 Πληθος 한 단어로 표현  
 했는데 이는 「구중, 회중」이란 뜻이다. 즉 ἐκκλησία 가) 부르게 되었는데  
 ἐκ + καλέω 즉 밖으로 불러 모았다"는 뜻이다. 이는 영어로 해석하기는  
 'The body called together' 한게 불려오는 받은 공동체"라고 해석하여 좋을듯  
 하다.<sup>132)</sup>

교회란 받은 자들이나 주리는 자들이 「의」란 말을 쓴데 이는 성령을 통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모인, 한 이스라엘 가리이므로  
 안다.

131. Ibid. P. 10  
 132. Harper: Analytical Greek Lexicon P. 125

교회란 말은 창비에서 주려는 다름이 「우리」란 말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부른 부름받은 사상의 모인. 찬 이스트웰은 가르치는 말인줄로 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분기시켜 생각할 수 있다. 이 두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가시적 교회란 주장과 이론의 혹은 무형적 교회란 인정과 실제 사면 교회의 본질은 단선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16c 종교개혁자들이 사웠던 이상은 가시적 교회에 중시하게 여겼던 교회의 지위가 높아졌고 부패성도 나타났었다. 불가시적 교회에 인정과 이론의 실제 성결과 우리의 것이 영적 교제에 부인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부름받은 Monarchian Docetism 과 같은 사상의 오류가 되고 마는 것과 같다. 그리고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양면은 다 동일시해야 할 선되지 않게 된다. 133)

교회는 성경의 관점에서 창조자 하나님께 의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서 시종은 계시를 받고 신앙이 일어나고 순교와 희생, 열매와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

교회는 땅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첫째로 교회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Incarnation)의 반복이다. 둘째로 교회의 존재가 삼위일체의 반복이라는 것은 「교회는 몸과 마음이 함께 사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공유되어서 예수 교회는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의 원리는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 불가분리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교회론 하서이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서이다. 이것은 신비이다. 이것은 인종, 시간, 공간, 역사적상황, 언어의 제약을 초월하는 차서한 이스카인이다. 교회는 거룩하다. 불순종하는 자가 거룩하게 되는 거룩은 그들의 거룩이 아니라 「불이한 사안」을 의롭게 하시는 이의 선행과 소명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만민만이 주원을 받는 그 사유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다.

교회론 표식은 교회론 동일과 거룩 즉 찬찬 교회는 간추어 있고 인간이 판단을 불려한다. 교회 존재의 결정은 신자의 교제 자체나 교회제도 자체나 경건의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神言이 바로 선포되고 설계선이 바르게 이행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sup>134)</sup>

## 2. 교회론의 기능

교회론 기능에는 3種이 있는데 "κηρυγμα, διδασκαλη, διακονια"이다. 이 세가지 기능이 제대로 결성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 1) 듣는 교회

교회론 기능은 첫째로 듣는 교회이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κηρυγμα를 전하는 곳이 교회이다. 왜냐하면 κηρυγμα에서 나온 聖言으로서 Proclamation, Proclaiming, Public inculcation 이란 뜻이다.<sup>135)</sup> 공중 앞에서 선포한다. 전도한다. 설교한다 하는 뜻이다.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134. 기독교사상잡화. op. cit. p. 336

135. Harper: Analytical Greek Lexicon p. 230

의 케리그마는 라스모브 낙가 온 것을 선포한 사실이다. 사도들이 세력 많이 케  
 리그마는 사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케리그마와 같다. 사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  
 을 풀이하기도 하였으며 기도하며 율법적 교훈을 가르치며 많이 선포하였는데 이  
 와 같은 가르침은 케리그마라고 불렀던 것이다.<sup>136)</sup> 케리그마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  
 요한 위치를 있었는데 케리그마의 내용은, 셋째로 메시야는 예수-시베-말씀시라  
 메시아는 선동적으로 라틴의 복소에서 나온다고 유대인이 기대한 사실의 증권을  
 전하였다. 둘째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이  
 다 기쁜 소식의 내용이다. 셋째 케리그마의 중심은 요한 1:23이다.<sup>137)</sup> 예수  
 는 요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 넷째 라스모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주로 다시 세상에 재림하셨다. 다섯째 간혹 회개  
 의 회개는 요구하셨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등의 내용이였다.<sup>138)</sup>

케리그마는 통하여 「라스모브는 행동하고 신약하고 용서하고 변화하고 양육  
 하며 인간을 구원함으로써 인간에게 자신을 주로 받게 하신다. 즉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성서는 통하여 교회에 말씀하신다. 그  
 리고 인간은 성서는 통하여 그의 은사를 받게 하신다. 여기에 교회가 성립되고 종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존중하고 상호 작용하며 이 관련  
 이 교회 전부의 생명이니 이 관계가 무시되고 약화되는 못가 교회의 위기가  
 있다. 교회가 성서에서만 말씀을 듣고 거기에만 충성을 다 하는것 이것만 바  
 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비결이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말씀  
 은 교회의 신교 설교사 敎義 습관 제도 등이 있어야 한다. 성서가 교회를 지배  
 하여야 하며, 결국 교회가 성서를 지배하여서는 안된다.<sup>139)</sup> 한편 그렇기 되면 구세주의

136. 전경환 외 5인 공역; 신약성서신학. (기독교서회 ) pp. 133-134

137. 이사야 42:1, 5:26

138. 전경환, op. cit. pp 136-144

최근 반복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체적으로 성서적 부흥 신뢰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 세상 속에서 성서가 절대적이게 보여지게 된다.

교회가 성서적 속박이 있지 않고 오직 성서에서 하나님은 듣지 않고 성서 이외의 교직자의 말을 성서와 같이 신뢰하고 부흥관에게 생명을 일게 되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복선은 성서에서만 얻는 것이다.

## 2) 가르치는 교회 (Didactic, Teaching)

교회의 두 번째의 기능은 가르치는 일 곧 Didactic이다. 디아케안 instruction, the giving of instruction, teaching 등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sup>140)</sup> 이러한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면, 교회 자체가 생환나 교회가 존재 이유인 이 본질에 봉사하는 일이다. 즉 이 시대에 이 본질을 주는 교회가 성서를 매개로 하여 환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시대에 회개하여 영회하고 보환하고 해명하고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본질을 듣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이 봉사 즉 의탁된 본질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 복음이 선교 되는 선교에 있다. 이것이 가르치는 교회의 의미이다. 교회의 구체적인 것은 예배이다. 예배는 통하여 하나님은 듣고 신앙고백한다. 교회는 이 일에 즉 선교 기도 찬양 등의 예배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라 교회학은 구체적이며 교회를 통하여 본질을 고백하고 증거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의 행동을 선교라고 하며, 선교는 성서 해석은 의미하며 성서 해석은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이 된다. 교회는 이 일이 근본적으로 관념은 사제 주장은 다르며 교회는 불완전하고 권능도 불완전하며 그 의무 즉 교회 자체의 본질과 임무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불완전 성서 해석으로 신다.<sup>141)</sup> 교회는 성서 해석이 역사이다. 오늘날에 와서 성서 해석에 기기가 왔다. 그러나 이러한

140. Harper. op. cit. p. 99

141. 기독교 사상 강좌 3권 (기독교서회 1976) p. 339

이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신학에 기반한 교육이 필요하다. 신학교육은 만민의 봉사에서 주요한 직능의 하나이다.

다다케는 근본적 표식은 「從」 즉 순기는 인이고 지배하는 일은 아니다. 교회는 보이는 역사적 형식으로서 교회에 질서가 있다. 교회는 주가 계시고 주가 지배하여야 한다. 교회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교직계급이나 교회의 권위가 설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인간의 교회가 되고 타당한 교회가 된다. 교직과 교회, 권위, 기관 등 교회의 질서는 만민에 봉사하기 위한 인간의 시도, 봉사의 기획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주 천마 만민의 종이다 (Minister Verbi divini)<sup>142)</sup> 만민의 종 이신 예수를 배우고 순기는 라세로 가르쳐야 한다. 교사직이나 신앙교백이 Dogma 的으로 나타나거나 전례화 할때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 교회는 만민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성서의 해석의 시도, 신학적 노력, 선교의 행동으로 그 권위가 인정되고 존 경 받아야 한다.

### 3) 봉사하는 교회 (Diakonia)

Diakonia란 Fellowship을 의미한다. 루카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창조이다」고 했다.<sup>143)</sup> 창조된 인간은 그의 내적 필연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셨다」는 사랑의 간섭은 증거하는 것은 될수가 없다. 그의 내적 자아숙아 행하지는 성령의 강요 때문에 이따같은 간섭의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한다. 이 불거피한 고백이 그의 생애 외의 단적 행동으로 일하고 성숙하고 교제하는 활동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神靈이 듣는 것(神의 사랑과 함께 대한 사랑과 순의)」에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장소, 환경, 시간, 활동, 순응수에서도 神靈을 듣고 이 사실을 여의지든, 어떤 때든, 누구에게 듣지, 증거하고 고백하는 행동에서 神을 차마하는 데 있다. 신학은 삶은 죽어서 잃었던 자기에게 구원자가 되신 것 처럼 신자들로 자기에게 존경을

142. Ibid. p. 340

143. Ibid. p. 340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자기의 생명을 주려는 것 밖에 없게 된다. 144)

이러한 사랑의 간절함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Slavkovia 가 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교회의 혁신은 교회의 기능(제직이나, 다마스, 디아코나)을 발휘하는 데에서 이루어 질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교회의 3대 기능은 항상 상호 균형이 있어야 한다. 어떤것 하나라도 결여되든지 약화되든지 하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된다.

한국교회는 항상 초대교회와 같이 단결이 있고 친교와 애찬을 나누며 전혀 기준에 힘을 쏟으며 교회는 경건하게 살수 있으며 신자의 등대와 구원의 방주요, 유방젖이음이 항상 피하는 교회가 될수 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혁신은 초대교회로 돌아가 교회의 3기능을 재형하고 교회의 기능을 살려가야 하리라고 본다.

### Ⅲ 한국교회 복신의 새로운 방향

한국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한민이 주님과 같은 개혁자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하여 기성종교에서 탈퇴한 것은 아니었다. 부패하고 비성서적인 교리로 개우쳐 보여오 한 시도였다. 이미 실시하여온 선교전략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개정하여 나갔다는 뜻을 기억해야 한다.

저는 여기서 결속이라고 하는 바는, 한국교회는 속고 부패하였으니, 새로운 단체를 형성하자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자들의 결선에 입각하여 (성서적) 선교에 충실한 기교이자는 뜻에서 새로운 방향을 결속하려고 한다.

앞으로 미래의 세계에 등장될 신기한 문체들은 결속이라고 하면 「인구문제 (인구 폭발지연에 가지 온) 세속주의의 단면, 세속주의의 극소화 (반 제로주의), 공산의 소멸, 기독교인이 잠정적으로 감소, 사회주의의 세계화 (모든 대기업의 국유화), 기술적이 아닌 새로운 리빙주의, 환경오염의 문제, 핵시화이 문제,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는 성경적이지도 않는 구별이 신성적으로 전제되어, 권위주의에 기약한 등광한 여성문화 (남녀의 심부름 구별이 사라져버림) ... 대개 이러한 것들이 미래의 복신의 초점일 것이며, 현재도 사사의 신화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E. Bloch는 천재인에 대해 말하기를 「천재인들은 각자가 손뼉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도 아니고 있는데 가면 파산의 위험을 느끼는 지점에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체들은 세계적 문체인 듯하나 한국의 문체로, 한국교회의 문체인 초 안다. 이러한 미래의 문체에 대비하여 교회는 대책을 수립하여야겠다. 다양한 근원 한국교회 각 종파에서 공동으로 기구개편과 선교문체에 있어서 교회확장하는데 포괄적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강(독립)은 교회의 신학과 개척의 문체로 매년 300 교회의 독립을 세웠고, 예강(독립)

교회 총회에서는 1천 교회를 개척 목표로, 같은 예산 조건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교회의 개척 운동을 위한 인도 운동하기로 결심한 바 있다. 예산(예산)에서도 개척 교회  
 설립에 예산을 두었다. 간접적으로는 5천 교회, 일백만 신도 선교 운동은, I.C.C.C  
 로 교회 개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 각 교회의 개척을 총괄한 교회의 개척 운동  
 이다. 이 운동은 다량 사역을 일으키는 바, 그러나 이것이 교파간 경쟁 운동이  
 이 선교 전략의 차이나 교인 생활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까? 라는 의문은 내  
 앞이 보인다. 매년 300 교회는 새롭다고 하면 거기서 누가 선교비 총괄을 계  
 획이 되었는가? 또한 개척된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선교비는 계속 뒷바라지 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개척하여 놓고 교회의 문을 닫게 되면 오히려 개척하지 못  
 한 것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이미 개척되어 있는 교회가 안락한 것이다. 개척된  
 교회가 자립 교회보다 더 많다. 이러한 교회에 부구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농촌에는 교회가 없다. 이 교회는 바로 새로운 수 있는 선교 전략으로 필  
 요한 줄로 안다. 아담은 모든 면에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느 한 가지 type의  
 교회 형태나 신앙을 가지고 이것이 종교의 본수이다. 라는 식의 절대적 관수  
 없는 시대에는 먼저 생각하여 교파와 대립의 간도 없고 상호간에 깊은 이해  
 와 선교 방향의 연구, 새로운 교회관, 등 선교의 공동적 책임의식은 느껴 연구  
 라고 신학과 신앙을 진취시켜 나가야 하리라 본다. 「기독교 교회의 변화」는  
 최후의 책으로 독일의 신학자 「카일 바나」의 「교회 교회의 모습」이라는 서  
 시에서 교회 개척에서는 교파주의는 것은 그 대부분이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문제  
 보다 사회적 사회적인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한국 교회의 교파주의는 무  
 의미라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선교 부분을 분할하고 신의 기쁨을 한다는 면에서는  
 다소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상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교인 수가

는 원화시기도 훨씬더욱게 διασπαση (흩어짐) 66인 선교의식을 고쳐시켜야 하며, 전통이라든지, 민족적인 배경이나서 신앙보다 인본주의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각자가 신앙의 계단을 내딛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St. Augustine도 '인간이 단순히 종교사학적인 의미에서 교회라는 조직체에 속하는 것보다 그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께 속하고 교회에 속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W.C.C 1975년 11월 「파리르비」 제 5차 세계대회에서 보수적인 복음주의가 사회, 행동주의, 인본주의적 신앙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이 있었으므로 크게 지성화해서 특히 보수적, 성령강림 계통의 교회들이 전 세계로 뿔뿔히 크게 부흥되던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주의와 성서적인 교회로서 명백히 유지되어 왔다. 개척자들의 신앙으로 앞날도 신앙을 고수하고 Κήρυγμα, διδασκίη, διακονία의 기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16C의 종교개혁은 한국교회 역사의 핵심이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16C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개혁이 없는 곳에는 죽은가 비잔과 부패가 있을 뿐이다. 개혁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약동하며 전진이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개혁의 열쇠는 모든 우리 한국교회에 비추어주어야 한다.

16C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그대로 현 한국교회에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방법은 더 다양하고 새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16C의 개혁은 개인이 선행이 되어 개혁은 시도되었으나 현 한국교회는 개인주의로 이어지는 안된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신자들은 신앙양상이 유교와 Shamanism의 영향을 다소나마 받았으므로 신앙이 개인주의가 배타적인 기질이 대부분이다. 교단주의와 교파주의 교차주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신학의 부각을 크게 가져야 할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그 교파의 중심으로 하여 단체인, 집단적, 연합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한국교회는 개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교회의 주인은 광도요.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상이 농후하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대중에 속하다」는 생각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것들의 결핍으로 모든 부각을 교회에서 초월로 향하여 크게 가져, 할 수가 없다.

죄로 번하고 있다. 비성서적이다. 비인간적인 것이다. 영적인 무용은 있으나 영적인 이 없는 교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 교회는 이제 신앙의 무용을 재평가해야 한다. 1904~1907년 평양을 주축으로 전국은 휩쓸고 삼척의 대북동맹이 한국 교회 무용 발전의 큰 징검다리 되었다. 그러나 현재로 한국 교회는 각 교파의 교회, 중회, 간담 기타 모든 것은 초월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입으며 예음, 회개, 자복으로 신앙의 출만한 은혜로 한국 신앙생활과 복음 증거에 힘쓰는 것 밖에 또 무슨 바란 것만 적신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2:42와 같이 찬송, 기도, 영적 데려 가는 것에 전혀 힘쓰는 교회로서 발돋움해야 한다.

16C 종교개혁자들의 영혼은 칸으로 세워진 것이다. 가히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교황청에 도전한 power의 외침은 Sola gratia, Sola Scriptura, Sola Christo, Sola gloria, Sola Fide의 정신과 같은 power가 교회를 개혁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 세계 어디서든 T심경을 사랑하는 교회(Bible-loving Church), 기도하는 교회(Praying Church), 찬송하는 교회(Singing Church), 연합과 협조의 교회(United and Cooperating Church)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이 와해되어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연합과 협조가 없는 개교회 중심이 되었다. 그러므로 3대 개혁의 고지마하여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성서적 운동이 재평가되어야 한다.

16C에는 주리, 조침근의, 광빈, 메상론, 양스 등 각 개개 지도자들이 각 생장 무력으로 개혁이 되었지만 오늘날은 연합적, 이 협조하는 교회 중심으로 힘써야 하며, 무信徒까지 다 감동하여 교회에 지도자 훈련 팀에서 비성서적이고 그릇된 사상을 배척하여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못된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의 당면한 과제는 「교회론 교회론」이다. 본인은 한국 교회의 당면한 과제를 진단하면서 본 논문을 쓰며 다짐하게 생각한 바이다. 이 논문이 저작으로 판권없이 나의 신앙을 개런트 확신 시켰으며, 하나님의 전대적인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영광을 위하여 'Fide Solo'의 정신으로 한국 교회의 혁신을 강행하여야 하라는 지은 확신이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침체된 한국 교회는 바르게 이끌수 있고 타락된 교회에 위상은 본래의 위치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22”

## 참 고 문 헌

- 지원용, 루터와 종교 개혁. 컨콜 디아사, 1975.
- 황지도, 서양교육사('종교 개혁'). 1952.
- 박광성, 요약 기독교회사. 영음사, 1963.
- 송낙원, 세계 기독교사. 기독교문화사, 1963.
-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제 2권). 기독교서회, 1966.
-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영음사, 1969.
- Louis Berkhoof(신복운역), 신학개론. 세종문화사, 1974.
- , 기독교 교리사. 은성문화사, 1974
- 김양선, 간추린 한국 교회사. 총회교육부, 1962.
- 곽안전. 심재원, 한국 교회사. 기독교서회, 1961.
-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기독교서회, 1969.
- 이병수, 한국사(종교사).
- 현상운, 조선 유학사. 민중서관, 1949.
- 김택오, 한국과 한국인(현대인 강좌 별권). 박문사, 1949.
- 장희근, 한국 장로교회사. 아성출판사, 1970.
- 민병배, 한국 기독교회사. 기독교서회, 1976.
- 고영근, 한국의 나갈길. 한영문화사, 1972.
- 박형용, 교의신학 III권(교회론). 은성문화사, 1973.
- 전경연외 5명 공저, 신약성서 신학. 기독교서회, 1973.
- 기독교 대사전. 기독교서회, 1971.
- 고영민, 헬라어 사전. 기독교문사, 1974.
- J.W.Wand(이상석역), 근대사(교회사).



- 기독교 사상. 기독교 서회, 1966.10
- 관추린 세계사. 학원사, 1961.
- 신앙지도. 국방부 군종 감실, 1970.
- 기독교 교육.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5.10(통권 104권)
- 이원용, 교육사. 부산대학교 교직원과정 교재, 1970.
- 신학통신강좌 III(교회사), '신학'(나일선, 성서연구원).
- 새생명. 새생명사, 1974.10
- 복된 말씀. 복된말씀사, 1976.10
- 기독교 사상. 기독교 서회, 1966.6
- 기독교 사상 강좌 III권. 기독교 서회, 1971.10
- 합동년감. 합동통신사, 1965.
- 조선 예수교 장로회사기. 총회교육부,
- 기독교 년감, 1957.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제 27회
- 김재준, 선교와 선교정책의 시대적 의의(새생명). 새생명사, 1963.7
- 기독교 사상. 기독교 서회, 1961.7
- 월간목회. 교문사, 1976. 9.10
- 김기수, 교회사 III. 경안성서학원(팜프렛)
- 심재원, 칼빈의 생애와 그 과학사상 (전경연 논문집). 신교출판, 1959.
- 김성천, Unity in the Protestant Churches of Korea. Yale Uni  
(박사논문), 1955.

J.L.Neve,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Vol I). The Christian Literature of Korea, 1970.

Georgia Harriuess, Christian Ethics.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3. 2. 20

Elgin & Mayer, Great Leader of the Christian Church.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4. 8

Luther, Seeberg, History of Pectrine II

Lorraine Boettner,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1972. 7

A.A.Hodge, Presbyterian Doctrine.

Harper, The Analytical Greek Lexicon.